

Good Morning
ASIA

2014 **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굿모닝
INCHEON **인천**

Good Morning
INCHEON



&

2014 **2**



어느 마음을 따를까요

취소하라.

취하라.

집주인의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이웃의 주장이 개입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 글자를 지워버려 그 뜻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아마 이게 원도심 주민들 각각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쪽은 개발, 다른 한쪽은 보전.

이 마음을 잘 헤아려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 남동구 간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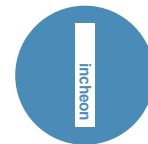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스페셜 인천의 고택

12 트렌드 몰링(Malling)

16 포커스 인천 구도심 여행

22 Culture News 매일매일 열리는 즐거운 공연 외

24 내 길 내 일 인천 레슬링의 아버지 임배영

2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28 사회적기업 탐방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29 그린 인천 카세어링

30 News Brief 송도에 올해 외국대학 3곳 문 연다 외

34 의정뉴스 '의회'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외

36 서평 정윤수의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 외

39 모닝커피 한잔 자유로운 사람들의 춤 이야기

40 생활정보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모집

이천십사년 이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2

contents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인도 델리

49. 에티켓

인사와 악수

50. Asiad News

“Hi 인천AG~”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요 외

52. 줌인

인천시체육회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중국

58. 하나되는 아시아

우리는 조류 독감 같은 거 몰라 외

60. 아시아를 배우다

언어권별 회화



표지이야기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인천시민 여러 분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의 노력과 열정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 속에 '성공'이란 두 글자가 आरो새겨집니다.

▷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40억 아시아인들이 하나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하려고 하는 데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시 인식표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는 마이크로칩은 2만원, 전자태그는 1만5천원, 등록인식표는 1만원입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남동구 만수 6동 담방초등학교 앞 버스정거장이 빙판길이라 너무 위험합니다. 염화칼슘 좀 뿌려주세요.

해당 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현재 제설작업 중인 작업자들에게 말씀하신 담방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제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집 쌍둥이가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입학금이 만만치 않네요. 혹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문의하신 유치원 입학금은 아쉽게도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이용자로 만 5세 자녀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고잔동 소래 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콜택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천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연락처는 인천콜(1577-5588), 세븐콜(032-611-7777), 가나콜택시(032-571-8006), 무지개콜택시(032-777-7815) 등이며, 참고로 모두 콜비가 없습니다.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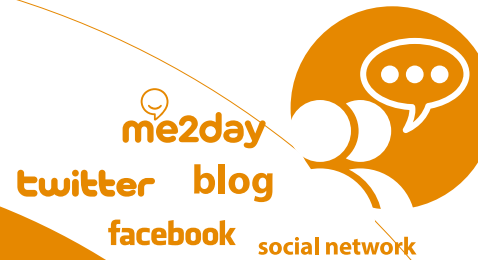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포근한 인천

독자 윤주영(48)



윤주영님은 남동구 구월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인천에 사업장을 열면서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12년. 포근하고 정겨운 정서를 간직한 인천과 그 안의 사람들에게 새록새록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10여 년을 머무르다 보니 인천이 매우 친근하게 여겨진다. 바다가 있어서인지 정답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또 지역이 광대하고 그에 얹힌 역사도 깊고 풍부하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바다에서 풍기는 짙은 냄새를 맡으며 역사의 흔적을 쫓아다니곤 한다.

‘굿모닝 인천’과의 인연 지역에 관심이 많아 직접 구독신청을 했다.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께서 배다리, 신포동, 동인천역 일대 등 인천에 얹힌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곤 한다. 미처 가보지 못한 곳은 책을 통해 접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인천은 가치 있는 역사와 문화를 품은 동시에 송도국제도시가 그렇듯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다.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을 초대하여 인천을 둘러보면 모두들 감명을 받는다. 인천시민들도 이에 자부심을 갖고 지역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고택은 시간과 공간의 그윽한 파노라마다. 오래된 집엔 그 집과 함께한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집주인의 숨결과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창틀, 문틀, 대문, 대청마루, 뒤뜰, 안방.... 집안 곳곳에는 살아온 사람들의 체취, 안목, 취향이 고스란히 배어 전해진다.

글 이용남 본지면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그 집 처마와 대들보엔 깊은 이야기가 있다



강화도 황부자집

강화도 천석꾼의 집으로 알려진 황부자집. 집은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에 위치한다. 이 집 대들보에는 1928년 7월 14일 새벽 4시 상량식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여름의 뜨거운 피약별을 피하고 새집에 상서로운 기운을 받고자 동트는 시각에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집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가옥구조인 ‘ㄱ자’ 모양이다. 일제 강점기에 건축되어 전통 한옥과 일본식이 혼합되어 있다. 집에는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호사를 다 부렸다. 대들보와 서까래는 백두산 잣나무를 썼다. 당시만 해도 부자집들은 백두산에서 나무를 가져다 집을 지었다. 추운지방에서 자라 촌충하고 짜임이 좋은 소나무류가 집을 짓는데 적합했기 때문이다. 집은 본채, 문간채, 사랑채, 곳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 구조와 내부는 집주인의 섬세하고 고급스런 안목과 취향이 그대로 녹아있다. 하나하나 짜 맞춘 창틀과 문틀, 특이한 문양의 마루, 문간 터짐 하나 없이 90여 년을 견뎠다. 당시로선 드물게 방문과 창문, 마루문에 한지와 유리를 함께 썼다. 유리는 일본에서 공수한 최신 스타일이었다. 햇볕 차단용 색유리로 근대 가옥의 분위기를 내고자 했던 흔적이 보인다.

황부자집은 당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집안이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김구 선생을 지원했고, 1932년 강화에 전기를 끌어오는 데도 혁혁한 역할을 했다. 또 미래의 보석인 강화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강화군립유치원을 후원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1947년에는 김구 선생이 이 집에 와서 하루를 묵었다고 한다. 백범 일지에 의하면 김구 선생은 1903년 황부자집 인근에 살던 김주경씨 집에서 이 집 아이들을 3개월간 가르쳤다고 한다.

90여 년을 이어 온 이 집은 한 번도 주인이 바뀌적이지 않다. 황부자로 불린 황국현씨의 부인이 1954년 갑오년에 사망한 후 관리인이 집을 지켜왔고, 2012년 12월에 도예가인 최성숙씨가 인수했다. 최씨는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집을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해 옛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 주는 ‘주생활 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화도 솔정리 고씨 가옥

넓직한 대지에 솟을대문이 집의 웅장함과 기품을 말한다. 강화도 송해면 솔정리 고씨 가옥은 솟을대문, 안채, 바깥채, 사랑채 등으로 구성된 ‘ㅁ’자형의 반가형 99칸 가옥이다. 전통적인 한옥에 일본식 건축양식을 혼합한 형태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2006년 인천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됐다.

이 집은 1941년 건립하였고 규모는 322.62㎡이다. 특징은 담장을 사고석으로 둘렀고 정면과 왼쪽, 오른쪽 3면에 문을 내었는데 정문은 1칸 규모의 솟을대문이다.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 트인 곳에 중정을 드나드는 출입구가 있다. 일본식 가옥처럼 행랑채 끝에 다실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복도를 각각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 집은 일꾼들이 지게로 흙을 날라다 땅을 고르게 펴느라 집터를 다지는 데만 4년이 걸렸다. 마당에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불리는 가림벽이 있는 것도 이 고택의 특징이다. 우물, 빨래터가 있는 여자들의 공간을 남자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든 벽이다.

현재 이 집은 고재송 할아버지(83)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고씨 집안은 강화의 3대 부자집 중 하나였다. 고 할아버지에 의하면 강화엔 3대 부자가 있었다. 강화 홍씨, 김씨, 고씨 였다. 이중 홍씨네는 만석꾼이었고, 고씨 집은 5천석꾼이었다. 고 할아버지의 선조들은 개성에서 장사로 큰돈을 벌어들여 강화도에 많은 땅을 샀다. 일제때는 양조장, 정미소, 직조공장을 운영하며 집안의 가세를 키웠다. 한 때는 이 집에 일꾼만 50명이 넘었다.

고 할아버지도 선조들의 영향을 받아 젊었을 때는 꽤 크게 장사를 했다. 강화 인삼을 재배해서 팔았고 강화 제일의 갑부가 되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듯이 할아버지는 80년대 들어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재산가로의 삶이 아닌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현재는 원로목사로 활동하며 고씨 가옥의 역사와 이야기를 깊이 간직하며 살고 있다.

가좌동 심재갑씨 가옥

서구 가좌동에 300년이라는 세월의 풍상과 역사를 가슴에 넉넉히 품으며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택이 있다. 일명 심재갑 고택이라 불리는 이 집은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청송 심씨 10대손 심공 한옹(1652~1715)이 거주하면서 역사적 장소의 삶을 갖게 되었다. 그후 심공 한옹의 8대손인 심공 상필(1873~1957)과 그의 아들 심공 운섭(1899~1966)이 4년간 증축공사를 했다. 증축 공사가 끝나는 날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기와집이 완성된 기쁨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축하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증축 공사에 쓰인 나무는 백두산 소나무로 압록강을 거쳐 서해를 건너와 이 집의 대들보와 서까래로 자신들을 헌신했고, 기와는 영흥도에 있는 임경업 장군의 혈린 사당의 기와를 배로 운반해와 사용했다.

심재갑씨 집안은 지역의 유지로 나눔과 배움을 실천한 인천의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문이다. 심재갑씨의 아버지는 ‘늘 이웃에게 양보하고 배풀어라’를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그래서 기와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심씨의 노력으로 마을에 첫 전기가 들어왔고, 전화기도 설치됐다. 전화기가 귀하던 시절, 마을사람들은 전화를 걸기 위해 심씨의 집 마당에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심씨의 고택은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어 주기도 했고, 1950년대에는 농촌 계몽 운동의 하나였던 야학을 지도하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심재갑 고택은 2008년 재개발로 인해 헐릴 위기에 처했었다. 마을을 대표하는 귀중한 고택이 사라진다는 위기감에 마을사람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집은 조만간 개보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재갑 선생(82)은 오래된 한옥집을 다니면서 고택 보수에 쓰일 기와를 모으고 있다.





내동 월아천(月牙泉) 객주집

구한말 또는 일제때 물상 객주집이었다는 월아천. 지금은 한식집으로 쓰이고 있지만 집은 등기부 등본상으론 일제때인 대정 13년(1924년)에 건축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역 문화가들은 진짜 건축연도를 1890년대로 추측한다. 집은 전형적인 ‘ㄱ’형 한옥 구조다. 솥을 대문과 중문이 있었고, 본채, 사랑채, 꽃담으로 이뤄지는 궁궐형태를 갖춘 예쁜 가옥이다. 집의 대들보와 서까래에 쓰인 나무는 황해도에서 채벌한 소나무다. 집을 세심하고 고급스럽게 지은 집주인의 안목이 느껴진다.

집의 고급스러움은 대들보의 굵기와 나무들의 등근 곡선에서 드러난다. 문틀을 감싼 나무나 서까래와 대들보 색깔도 다른 집과는 틀린 격조를 보여준다. 못을 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잇고, 엮은 것도 이 집의 특징이다.

2007년 집을 인수한 박정숙 사장은 이 집이 객주집 답게 방이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 안방을 빼곤 작은 평수의 손님방이 여럿 있었다. 집을 살 당시엔 서까래가 있는 천장에 텐조가 설치되어 있어 집의 역사적인 가치를 몰랐다. 식당으로 열기 위해 집을 개보수하면서 가려졌던 서까래와 집의 원형이 나왔고, 주변에서 황재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집을 수리하면서 바깥 벽쪽으로 1평도 안되는 비밀공간도 발견했다. 안채로는 연결이 안되고 바깥 창문으로만 나갈 수 있게 만든 숨은 공간이었다. 발견 당시 방바닥엔 화문석이 깔려있어 누군가를 숨겨주기 위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이 집은 인천에서 큰 포목점을 한 이순영, 애관극장 주인이었던 정치국, 국회의장을



지낸 곽상훈씨가 소유했었다. 월아천과 잇닿아 있는 옆 한옥도 객주집이었다. 이 집은 전형적인 객주집의 형태로 1,2평 짜리 작은 방이 8~9개나 되어 상거래는 물론 지방 상인들이 인천에 와서 묵어가던 곳이었다. 이 집의 특이점은 넓은 지하공간이다. 보통 한옥은 지하가 없는데 이 집은 방공호 형태의 커다란 지하공간이 있어 무궁무진한 상상을 하게 한다. 향토 전문가들은 이곳이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줬던 공간으로 봤다. 이 집과 월아천과는 담 없이 뒷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집 주인이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율목동 검은 기와집

율목동은 인천의 대표적인 한옥촌이었다. 이곳 한옥에는 인천의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2,30년 전만해도 이 골목저 골목으로 한옥들이 이어져 있어 풍경 또한 아름다웠다. 율목동 245-9번지에 위치한 양재복(70)할머니의 한옥은 율목동에선 가장 오래된 집으로 손꼽힌다. 할머니는 이 집이 왜정때 지었다고 한다. 25년 전 이사한 양 할어

머니는 당시 이 집을 동네사람들은 ‘부자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집은 전형적인 ‘ㄱ’자형이다. 대문이 있고, 중간 대문, 안채, 바깥채, 사랑채로 이뤄졌다. 전 주인은 만물상을 운영했다고 한다.

집주인 양재복 할머니는 이 집에 이사 온 후 아들, 딸이 잘됐고, 집안일도 잘 풀렸다고 한다. 5년 전 집을 수리하면서 텐조를 설치해 지금은 서까래와 대들보를 볼 수 없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대들보는 자신의 양팔로 감싸도 남을 만큼 굵은 아름드리나무다. 할머니는 이 집을 살 때 남향인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편안하고 폭 안기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한다. 집은 내부수리와 바깥 차양만 공사를 했고, 대문과 지붕기와는 옛날 모습 그대로다.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모 방송사에서 오래된 집 촬영장소로 섭외가 들어온 적도 있다. 양 할머니는 집터 좋고 부자가 된다는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 계획이다. 부동산에서 집을 팔라고 여러 번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 자식들 하는 일 잘되고 마음편하게 잘 살고 있는게 이 집 덕분이라는 생각에 집을 더 아끼고 보듬으며 살고 싶다.

미국의 ‘몰 오브 아메리카’, 일본의 ‘커넬시티’, 홍콩의 ‘하버시티’... 한때 해외의 도심에서 만나는 거대한 복합쇼핑몰은 또 하나의 신세계이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해 우리나라로 불어 온 ‘몰링(Malling)’의 시대가 인천에도 열렸다. 그리고 곧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복합 쇼핑물들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한곳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쇼핑하는 몰링은 단순한 소비문화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찾아 인천으로 수많은 발걸음이 이어질 날이 머지않았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몰링’ 서울로 왜 가?

인천에 다 있는데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퀘어원은 인천지하철 동춘역에서 1분, 송도국제도시와 논현·한화 지구에서 1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다. 각 층별로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 후 바로 원하는 매장으로 갈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 E-쿠폰을 받을 수 있다. www.square1.co.kr, 456-4000



스퀘어원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먹고 쇼핑하고 여가를 즐기는 몰(Mall)의 세계가 하나의 문화로 떠올랐지만, 우리에게 아직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10월, 스퀘어원(Square 1)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스퀘어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웅장하게 뻗은 건물에 레스토랑, 글로벌 브랜드 숍, 멀티플렉스 영화관, 마트 등이 들어선 대형 복합쇼핑몰. 주말이면 이 몰 저 몰을 찾아 헤매야 했던 우리의 홈그라운드엔 드디어 제대로 된 몰이 나타난 것이다. 이곳은 실내가 투명하게 보이는 외벽으로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쇼핑 내내 자연채광이 드리워져 있어 산책을 하듯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또 갤러리, 북 카페,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홀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한자리에

스퀘어원에는 15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1층에는 글로벌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브랜드 매장이 즐비하다. 특히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인 인디텍사스의 다섯 개 패션 브랜드가 한곳에 들어선 것은 인천에선 이곳이 최초다. 이와 함께 국내 토종 SPA와 신생 SPA 브랜드까지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어 패션리더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층은 젊음의 감성을 자극하는 캐주얼 브랜드와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가 모여 있다. 굳이 지갑을 열지 않아도 원도소 쇼핑만으로 즐겁다.

엄마 아빠 손잡고 몰링

스퀘어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매장이 많고, 각종 마다 수유실과 어린이 휴게공간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다. 3층 ‘피노키오 키즈 카페’에는 편백나무를 사용한 자연친화적인 놀이방과 꼬마기차, 트램펄린 등의 놀이기구가 있어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다. 지하에는 애완동물 매장 ‘I Love Pet’이 있다. 물고기가 노니는 수족관이 작은 아쿠아리움을 찾은 듯 즐거움을 선사한다.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어바웃하우스(About House)’와 가전제품 전시장, 지하 1, 2층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등은 엄마 아빠를 위한 공간이다. 피노키오 키즈카페 456-4343, I Love Pet 817-2801

골라 노는 재미가 있다

고소한 팝콘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긴 곳은 4층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3D 상영관 2개관을 비롯해 6개관에서 최신영화를 상영한다. 근처에는 햄버거와 케이크 등 영화를 보는 동안 팝콘 대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파는 가게가 많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는 게임센터 ‘Fun it’에 들려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버리자. 술술 시장기가 돌면 3, 4층의 전문 식당가로 향하자. 한식, 일식, 중식, 샐러드 바 등 메뉴도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이 허기진 배와 미각을 충족시킨다.

CGV 인천 연수 : 1544-1122

쇼핑몰이야? 공연장이야?

4층에는 공연장, 북카페, 갤러리 등을 갖춘 문화홀이 있다. 갤러리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와 시민이 소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공연장에서는 대학로에서 인증받은 좋은 공연들을 선보이며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천여 권의 도서를 구비한 편안한 분위기의 북 카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C 큐브 커널워크점은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에 있다. 기본 주차 1천 대에 추가 임시 주차 1천 대가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NC 큐브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log.naver.com/nccube, 723-6300



유리피안처럼
스트리트 몰링

NC 큐브 커널워크점

분당에 정자동 카페거리가 서울에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다면, 인천에는 송도국제 도시 커널워크가 있다. 송도 커널워크에 입점한 유럽형 몰링 스트리트인 NC 큐브가 송도국제도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등으로 이뤄진 이곳에는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쇼핑매장 90여 곳과 식당, 카페 50여 곳이 줄지어 있다. 또 거리 곳곳에 노천카페와 산책로가 있고 그 안에서 예술 공연이 열려, 송도국제도시 주민은 물론 멀리 다른 도시에서도 낭만을 찾아 수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싱그러운 봄동, 핫하고 합리적인 SPA 세상

봄동에는 최신 유행의 저렴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쏟아내는 글로벌 SPA 브랜드 매장이 준비하다. 누구나 팬이 되는 슈즈 ‘슈펜’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갖춘 아시아 최초의 신발 SPA 브랜드다. 3층에 있는 ‘모던 하우스’는 유럽풍 홈 인테리어 스타일로 시즌마다 새로운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상품을 제안한다. 그 위층에 있는 ‘버터’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캐릭터 숍이다. 아기자기한 캐릭터 소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슈펜(109호) 723-6346, 모던하우스(302호)·버터(402호) 080-973-0352

활기찬 여름동, 유럽의 감성을 고스란히

입구에 보이는 고풍스러운 시계탑이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름동에는 ‘타임’, ‘마인’ 등 국내 고급 패션 브랜드의 상설 할인 매장이 자리한다. 명품 편집숍 ‘럭셔리 갤러리’는 다양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으로 들여와 선보인다. 백화점가보다 35% 정도 저렴하다. 유럽의 감성을 담은 노천카페와 브런치 카페도 많다. 샐러드 바로 잘 알려진 ‘애슐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브런치 카페로 문을 열었다. ‘누베떼’는 즉석 수제 아이스크림 전문점. 과일, 녹차, 단호박 등의 천연 재료를 넣어 주문 즉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준다. 달지 않고 뒷맛이 깔끔하다. 럭셔리 갤러리(155호) 723-6508, 애슐리 브런치 카페(102호) 1577-1259, 누베떼(175호) 833-2850

풍성한 가을동, 멋진 남자로 변신~

가을동에서는 남성복과 캐주얼을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스파오(SPAO)’는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SPA 브랜드다. 디자인은 베이직하지만 세련된 핏과 컬러감으로 사랑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유명 브랜드인 ‘타미힐피거’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프레즐 카페 ‘하트레첵’에서 파는 따뜻한 프레즐은 쇼핑하느라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딱 좋다. SPAO(102호) 080-330-0456, 타미힐피거(111호), 하트레첵(153호)

아늑한 겨울동, 글로벌 쇼핑 후 글로벌하게 식사

겨울동에는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들을 만날 수 있다. 슈즈 편집숍 ‘폴더’에는 글로벌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한정판이 종종 들어와 슈즈 마니아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나있다. 글로벌한 쇼핑을 끝낸 후 저녁도 글로벌하게 이탈리아식 레스토랑에서 즐기자. ‘지아니’s 나폴리’는 이탈리아 화산석으로 만든 화덕에 참나무 장작으로 485도에서 굽는 나폴리 정통 피자로 유명하다. 100년 전통의 이탈리아 시레사(Ciresa)사의 치즈와 쫄깃하고 담백한 도우의 식감이 일품이다. 그 맛을 인정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폴더(101호) 723-6701, 지아니’s 나폴리(118호) 834-1025





비행기 안 타도 즐겁다

공항 교통센터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는 단순하게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는 공항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한다. 레스토랑과 카페, 영화관 등을 갖춘 교통센터 쇼핑몰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달래고 고된 비행을 환기시켜 준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오히려 더 머물고 싶어 하는 이곳은, 영종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즐거찾기’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 공항철도를 타면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어, 서울을 비롯해 멀리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는 공항철도를 타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다.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 공항역까지 단 50여 분 걸리며, 역에서 내리면 바로 교통센터다. 자가용을 타고 왔다면 C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 3번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된다.



난 공항에서 쇼핑한다~

공항에는 일반 쇼핑몰에서는 만나기 힘든 기프트 편집숍이 많다. 그래서 여행객이 아니더라도 일부터 공항철도를 타고 먼 발걸음을 하기도 한다. ‘박씨상방’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면 한 번쯤 들르는 곳이다. 도자기, 나전칠기 등 한국의 아름다움이 깃든 전통공예품이 눈길을 끈다. ‘더 방(THE BA:NG)’은 한류스타 이병헌을 테마로 한 스타 아이템과 글로벌 브랜드의 디자인 소품이 가득한 박물관고, 각 나라의 고유한 감성이 담긴 물건들은 눈으로만 대중 스캔해도 즐겁다. 박씨상방 : 743-1140, 더 방 743-7032

티켓 없이 세계여행하기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외국여행을 떠난 듯 기분을 낼 수 있다. ‘멤포스트’에 가면 사진을 촬영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배경으로 합성해 준다. ‘모히톡’은 쿠바 휴양지 콘셉트의 라틴 아메리칸 바 다이닝 (Bar Dining)으로 나초, 타코, 퀘사디아 등 멕시코 요리와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중식당 ‘루완’은 코스별로 준비된 다양한 중식 메뉴로 미각을 유혹한다. 여기에 ‘젤라치오’의 이탈리아인 수제 아이스크림으로 세계여행을 마무리하자.

멤포스트 070-4390-8421, 모히톡 743-7053, 루완 743-7051, 젤라치오 743-4216

스케이트 타고, 공항 안을 상상~

교통센터 한가운데 있는 ‘아이스 포레스트’는 얼음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계절 스케이트장. 공항 내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들어선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최초다. 사람들은 새하얀 은반 위에서 함께 웃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며 도타운 정을 나눈다. 스케이트장은 6세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입장료는 무료로 스케이트 대여료가 성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는 2천원이다. 아이스 포레스트 : 743-7087

발걸음 돌리기 쉽다면, 영화 한편

스케이트장 옆에는 미니플렉스 영화관이 있다. 입구에 유명 영화배우와 감독들의 핸드프린트와 영화포스터가 전시돼 있어, 이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한류 팬들도 많다. 두 개의 상영관에 총 254석 규모로 아담하지만, 상영관 1관에선 3D, 2관에선 4Way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다. 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캐리어를 곁에 두도록 좌석간의 간격을 넓게 설계해,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간혹 공항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마친 연예인들이 찾기도 한다니, 운이 좋으면 브라운관에서 보던 스타를 눈앞에서 마주할 수도. CGV인천공항 : 1544-1122



이제, 홍콩에서 인천으로 쇼핑온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중심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결합한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몰려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동북아시아권 시장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접근이 편리해 서울, 수도권 인구 전체를 잠재적인 고객으로 품고 있다. 롯데는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롯데몰 송도’의 1단계 유통시설인 롯데마트의 문을 열었다. 롯데몰 송도는 총면적 44만2천㎡에 복합영화관·디지털파크·아이스링크장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이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017년 말경 완공된다. 커널워크에 ‘NC 큐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는 롯데몰 송도 길 건너편 1만9천587㎡에 ‘NC 백화점’과 호텔, 쇼핑몰을 오는 2015년 말에 건립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송도개발㈜은 테크노파크역 인근에 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건립한다. 오는 2015년 말 1단계 시설을 완공할 방침이다. 신세계는 청라국제도시 16만5천㎡ 부지에 위락과 쇼핑, 문화, 레저공간을 갖춘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 케이블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 ‘꽃보다○○’시리즈가 큰 인기다. 여행을 통해 인생을 힐링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여행이야 말로 삶을 값지게 하는 자양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냄새 진하게 배어 있는 인천 구도심 여행은 인천 근대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할머니, 엄마, 아빠 세대의 흔적을 쫓을 수 있는 시간여행이다. 올해 인천시를 이끌어 갈 사자성어는 동주공제(同舟共濟)다. 동주공제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넌다’는 의미지만,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함께한다는 뜻으로 읽어도 좋다. 동주공제(동인천, 주안, 공촌동, 제물포)를 배경삼아 여행하면 인천이 더 잘 보이고 더 정겹게 느껴질 것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낭만과 향수 가득한

‘동주공제’ 여행

인 천 안 촌 물
천 동 등 포



동인천 일대



동 인천
천 등 포

동(同)

동인천은 개항 이후 1980년대까지 번성하다 도심 개발이 송도를 비롯한 신도시로 쏠리면서 구도심의 원형으로 남았다. 한때 번창했던 곳이기에 공간과 장소에 대한 추억과 낭만이 아직도 곳곳에 배어 있다.

동인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동인천 지하상가가 있다. 7,80년대 인천쇼핑의 대명사였다. 하교시간이나 주말이면 쇼핑인파로 걷는 것이 힘들 정도였다. 동인천 지하상가는 새동인천, 동인천, 중앙로, 인현, 신포지하상가를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새동인천이 72년에 처음 열었고, 83년 신포지하상가가 마지막에 생겼다. 현재 이곳은 600~700여 개의 상가가 영업중이다. 의류, 핸드폰, 신발, 잡화 가게가 주류다. 지하상가는 옛날처럼 활기차지 않다. 그래도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장점이다.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면 학생들의 문화공간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다. 1999년 57명의 어린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후 건립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천국이다. 인천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그것도 다 공짜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선 자리는 인천 근대교육의 산실인 인천축현초등학교가 있던 자리다. 축현초등학교는 연수구로 이전했지만 근대교육의 발상지로서의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동인천역 오른편 ‘굴다리’를 건너면 배다리 헌책방이 나온다. 한때 쇠락을 거듭하며 일부 남은 헌책방들도 문을 닫았지만 최근들어 지역 문화인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책방과 갤러리 등이 어우러져 인천 도심의 문화적 명소가 되었다. 유명한 ‘아벨서점’, ‘나비날다’ 등의 중고책 서점엔 따듯한 인정과 문화가 넘쳐 흐른다. 여기서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보는 것도 재미다.

이어 달동네에 위치한 송현동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으로 가보자. 60년대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 마을인 송림동 사람들의 모습을 박물관으로 재현했다. 실제 그곳에 있었던 솜집, 이발소, 만화방, 흑백텔레비전을 보는 가족, 연탄집 등의 모습과 비탈진 골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박물관에는 달동네에서 고단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마네킨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마네킨은 화색이고, 어떤 것들은 흰색이다. 흰색은 송림동에 사셨던 실존인물들의 모습이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2005년 10월에 세워졌다. 고층아파트 단지 옆에 있으면서 동네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방문자들에게는 60~70년대를 추억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인천 경양식 4대 맛집

동인천 일대에는 7,80년대 스타일로 운영하는 4대 경양식이 있다. 등대, 국제, 잉글랜드, 씨싸이드다. 국제경양식은 작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했다. 잉글랜드는 81년 문을 열었고, 씨싸이드는 89년, 등대는 40년이 넘었다. 이들 경양식집에 가면 밥과 빵, 크림스프와 아채스프를 골라먹을 수 있다.

등대경양식은 40년 전통을 자랑한다. 건물외관과 내부는 낡은 모습 그대로다. 이 집이 자랑하는 메뉴는 돈가스와 갓 구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다. 빵에는 부드러운 버터와 딸기잼이 함께 나온다. 돈가스는 두툼하고 방금 튀겨내어 따뜻하고 고소하다. 그 위에 소스가 뿌려져 있어 더욱 입맛을 돋운다. 구도심을 여행하다 출출할 때 둘러보면 좋은 공간이다.



주안역은 1899년 영업을 시작했다. 1955년 5월 주인선이 개통되었고, 1974년 8월 수도권 전철로 시민의 발이 됐다. 주안역은 인천의 중심지로 교통의 요지다. 특히 주안역 남쪽 광장은 버스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남구일대, 동춘동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고, 인하대생들도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그 만큼 환승의 요충지였기에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다.

주안역 길 건너 고려예식장 뒷길은 주안로데오거리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안 20,30'거리로 불린다. 먹자골목으로 음식점, 술집, 커피숍 등이 즐비하다. 1980년대 중반 '춥불커피숍'이 유명했고, 유동인구가 많아지자 술집, 음식점, 커피숍이 많이 생겼다. 90년대엔 다른 가게에서 못 받는 손님만 받아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권이 좋았다. 그런 상권이 90년 이후 주안 5,6 공단이 이전하고 구월동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면서 사람이 점점 줄었다. 또 여기에 법원이 옮겨가고,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상인들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차 없는 거리, 호객행위 금지 등 많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양한 문화 이벤트로 시민이 다시 찾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주(舟)

주안역 일대



남구 주안 일대는 미디어 체험공간이 많다. 영화공간 주안(427-6777)도 그 중 하나. 영화공간 주안은 지자체 최초의 예술영화 상영관으로 연중 국내외 최신 예술영화,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의 발길이 잦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873-2622)는 2007년 설립해 그간 평범한 우리네 이웃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또 그 결과물을 상영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상문화 교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 또 미디어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추세,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작년 영상미디어복합센터로 이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영상교육 및 미디어 제작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주안에는 프랑스문화원(873-5556)이 있어 인천과 프랑스를 연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유학정보를 제공하고, 어학교육을 한다. 또 프랑스 관련 책, 잡지, 비디오, CD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프랑스문화를 즐길 수 있다. 문화원은 '시네마프랑스인천'을 정기적으로 열어, 프랑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공(共)

공촌동 주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둥근 아치형의 철제 지붕이 완성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주경기장의 주소지는 서구 연희동이지만 공촌동과는 바로 이웃이다. 주경기장은 대회의 메인장소로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1월 말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외벽 마감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주경기장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개·폐회식 행사가 치러지고 육상, 크리켓 경기가 열린다. 경기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6만1천74석 중 3만7백여 석이 가변석이라는 점이다. 어느 경기장보다 가변석 규모가 크다. 가변석은 대회가 끝나면 좌석을 뜯고 시민 편의를 위한 수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9월 19일 개막식을 위해 주경기장은 한창 예쁘게 몸을 차장하고 있다. 개막식날, 아시아인들의 이목이 이곳을 향할 것이다.

제물포역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출발했다. 1957년 11월 1일 '송의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1959년 7월 1일 제물포역으로 개칭했으며 그해 3월 역사를 준공했다. 제물포 앞의 지하상가는 1976년 8월에 착공해 1977년 6월 1일 준공했다. 부역명은 인천대 앞이었으나 인천대학교가 2009년 9월 1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자 재능대학으로 바뀌었다가 2010년 2월부터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로 불리고 있다.

제물포역 북광장으로 나가면 인천 최대의 사학재단인 선인학원이 있던 캠퍼스를 만난다. 인천대학교는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후문쪽 상권이 발달한 캠퍼스였다. 인천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후 2013년부터 청운대학교가 들어와 학생을 맞고 있다. 선인학원은 한때 유치원부터 초,중,고, 실업고, 전문대학, 대학교까지 총 16개의 학교에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다녔다. 선인학원 캠퍼스 부지는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넓었다. 선인학원은 80년대 학내분규와 민주화 바람이 일자 국가에 재산을 기부채납하면서 사립에서 공립으로 명패를 바꿔 달았다.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없어졌고, 운봉, 향도 실업계고등학교는 하이테크고, 마이스터고로, 운산기계공고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는 제2행정타운 조성으로 다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제(濟)

제물포역,
도화동 일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 인천시립극단 1588-2341

최희중
피아니스트

노브레이크Swason5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R석 7만7천원
☎ 오름기획 1566-655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30분 / 초대
☎ 인음주니어현악합주단, 인음청소년플룻앙상블
888-0807



~2월 23일 013 제4기 입주예술가 결과보고展 / 인천아트플랫폼
 ~2월 27일 밀가루 채흠 & 모래놀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2월 19일~3월 4일 이수길 - 사진으로 맞보는 대한민국 장터 이야기 / 인천평생학습관
 2월 21일~2월 27일 장영자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문의 : 인천시 관광진흥과 ☎ 440-4067
인천시 관광협회 ☎ 432-459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찬란히 빛날, 60년의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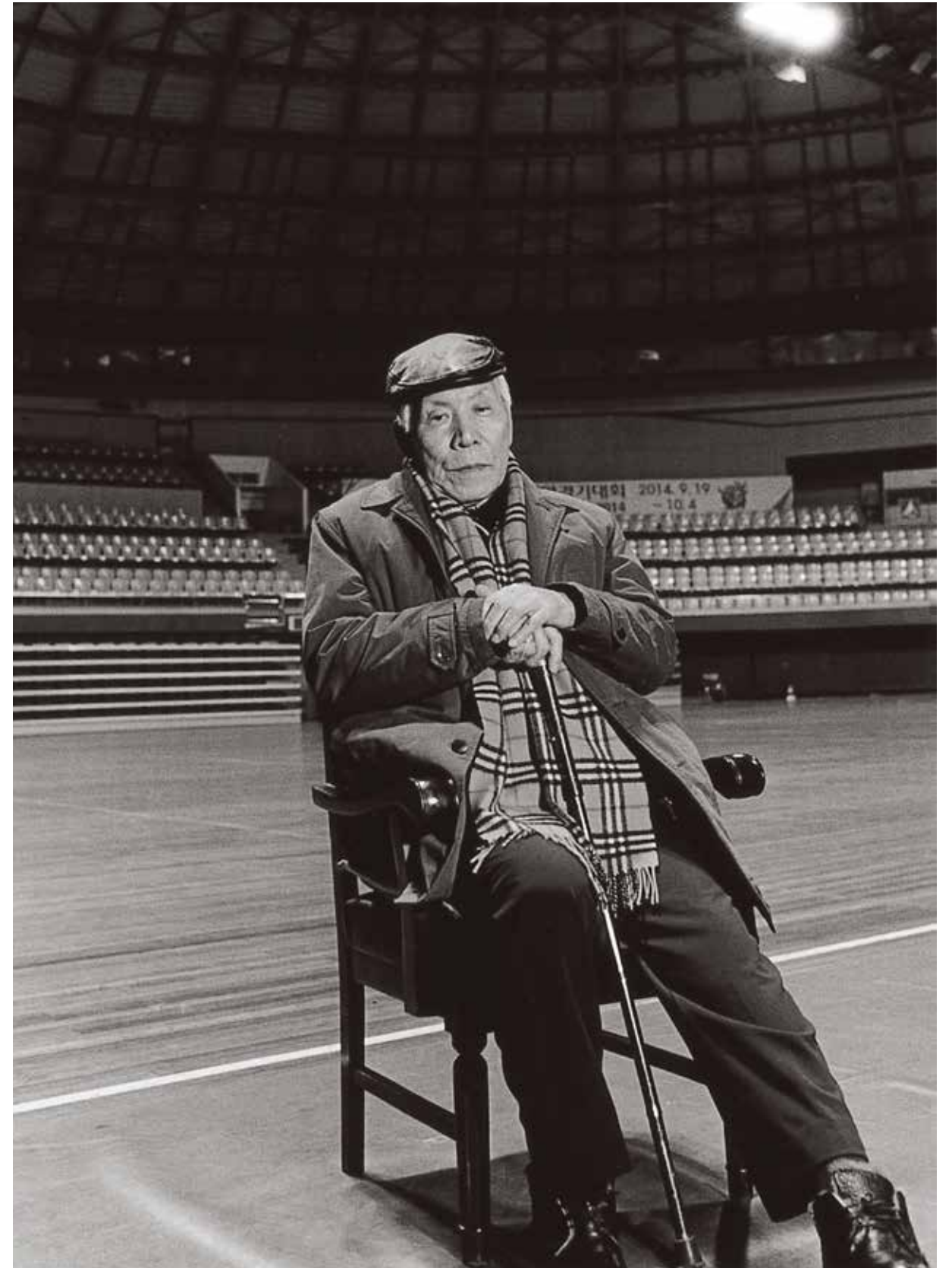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그는 타고난 레슬러다. 인천 레슬링의 아버지 임배영(85).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아직 뚜렷한 눈매와 단단한 풍채에서 나오는 위엄은 세월도 어찌할 수 없다. 레슬링은 가장 남자답고 원초적인 스포츠다. 치고 박고 뒤집고 죽기 살기로 상대를 제압해야 승패가 갈린다. 그 타고난 기질을 알아 본 사람이 김석영이다. 김석영은 30년대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레슬링을 한 지성을 갖춘 스포츠맨이었다. 일본에서 웰터급 1인자로 등극한 김석영은 8·15 광복 후 인천에 레슬링을 보급하기 위해 인천신사 자리에 도장을 차렸다. 그 초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임배영이다. 그는 덕적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인천으로 와 레슬링 도장을 찾았다. 그때 나이가 16세. 학업이 끝나면 그 길로 도장으로 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스승까지 잃는 불운이 그를 덮쳤다. 그래도 최고의 레슬러가 되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전쟁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도장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땀 흘리고,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광주로 갔다. 그 대회가 1952년 헬싱키올림픽 1차 예선을 겸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회에 출전해야 했다. 그는 레슬링에 한한 집요하고 무서운 힘을 지녔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전쟁보다 더한 시련이 찾아왔다. 헬싱키 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끝내 세계무대에 서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한국이 처음으로 출전한 아시아경기대회인 1954년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땀다. 이후 임배영은 인천에서 김화경, 최영길, 김문기 등 수많은 레슬링 국가대표들을 키워냈다. 특히 장창선은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며 그가 못 다한 꿈을 이루었다. 지금도 그는 인천 레슬링의 아버지이자, 인천체육인회장으로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그런 그에게 있어 2014년은 매우 특별하다.

“올해는 내가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딴 지 60주년이 되는 해야. 더군다나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니 그 감격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 인천은 긴 세월 대한민국의 체육을 이끌어 왔어.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

인터뷰가 끝날 무렵, 그는 떨어지는 해를 보며 ‘내 인생도 저렇게 저물어가고 있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천체육의 오늘을 있게 하고 앞으로도 귀감이 되어 줄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던가. 언제까지나 그는 아시아를 움직인 최고의 레슬러로 기억될 것이다.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6·25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상흔이 점차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단기 4288년(서기 1955년)에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당시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신생동에 난민구호 위한 우유죽급식소 신설

정리 유동현 본지면집장

양귀비 재배자 의법 처단한다

최근 각 농촌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향이 있어 시 사회과에서는 이에 대한 취체를 수시로 단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각된 건수 만 20여 건에 달한다고 하며 발각된 현물은 즉각 압수 처분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는 구류 처분 혹은 시말서를 받아 앞으로의 과오를 범치 않도록 엄중 지시하였다. 제일 많이 재배한 사람이 3백 주 가량이고 5주 이상은 관상용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일반 시민은 주의하고 양귀비 재배를 삼가주기 바란다고 한다. (1955년 6월 24일자)

似而非(사이비) 연사 단속

공보처 사전연락 요망

근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혼탁한 시국에 편승하여 지방민심 계도를 빙자하고 관하 각지를 순회하며 강연이라는 구실 하에 유형무형의 민폐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공보처에서는 앞으로 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하며 시국 강연 연사를 파견할 시는 추호도 지방의 물질적 원조를 구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파견연사의 명단을 사전에 연락할 것이라고 하는 바 지방에서 공문연락이 없는 연사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 하에 조치하도록 요망하고 있다고 한다. (1955년 9월16일자)

시민체육행사에 기여

도원공설운동장 개수

30만 인천시민의 체육연마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도원동공설운동장은 사변 후 폐허 상태에 놓여 시민체육을 향상시키는 면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관리 유지상에 많은 폐단이 있음으로 금번 인천시에서는 동운동장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외지(外地)의 운동단체를 유치하여 시민체육향상에 발전을 도모코자 미 21항만사령부와 절충한 결과 원만한 합의로서 목재 7천 개를

보조 받는 한편 정지용으로 ‘뽕푸추력(덤프트럭)’도 동원되리라고 한다. 그럼으로 운동장 주변 880米(m)에다 드럼통을 압연(壓延)한 철판으로 울타리를 하고 정문을 개축하는 등 동운동장을 전면적으로 단장하리라고 하는 데 24일에 경쟁입찰을 하여 즉시 공사에 착수할 것인바 동운동장은 이번 개수공사로서 대인천의 면모를 갓출 것으로 일반 시민의 기대는 자못 큰 바가 있다 한다.

(1955년 9월 23일자)

의료, 다방, 이발, 목욕 등 반액 제공

휴가 장병에게 특별 봉사

6·25 동란 이래 우리 국군용사들은 민족의 전위로서 공산격파 요전감투를 계속하여 오다 금번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인하여 일시나마 전진을 씻고자 일제히 휴가를 받아 귀향 중에 있거니와 모름지기 전 국민들은 이들 휴가 장병을 물심양면으로 응대해야 할 것으로 현재 다각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좀더 휴가 장병들에게 편의와 위안을 주고자 10월 1일 하오 2시 시 보건과에서 시내 의사회, 치과의사회, 목욕업, 이발업, 요식업, 다방 등 대표자가 회합하고 휴가장병 응대에 대한 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하는 데 시내 각 요식업자에 대해서

는 현행 요금의 3할 할인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기타 업자에 있어서는 현 요금의 반액으로 온갖 편의를 제공키로 되었다는 바 이 취지를 널리 선전시켜 일반에게도 원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선전포스터를 시내 각처에 첨부하리라 한다. (1955년 10월 7일자)

난민구호에 희소식

신생동에 죽 급식소 신설

인천시에서는 극빈자의 구호대책으로 현재 만석동 및 금곡동 2개소에 우유죽급식소를 설치하고 호구지책이 없는 생활이 극난한 시민에게 급식을 실시하여 오던 바 현재 서해안 지구로부터 철수한 피난민과 북상피난민들이 집결하여 16만8천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구호시책상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현재 2개소의 우유죽급식소 31개소를 신설하고자 도당국과 절충하여 오던 바 한미친선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토의되어 시내 사동·신생동에다 동 급식소 1개소를 신설키로 합의를 보고 건축부지 57평을 물색하고 건축설계 기타구역배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급식소가 실현되면 1일 약 6천명에 대한 급식이 가능하리라고 한다.

(1955년 12월 9일자)

드럼통을 펴서 담장을 친 공설운동장 모습



복사용지, 종이컵 등으로
100억 ‘폭풍’ 매출

글 최유리 시 사회적경제과



‘쓰르릉 쓰르릉...’ 종이 자르는 재단기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린다. 종이 재단에서부터 포장, 완제품 출하까지 그들의 눈길과 손끝이 예사롭지 않다. 옆에서 누군가가 “장애인 근로자들입니다”라고 말하고 나서야 갑자기 어리석은 편견이 생긴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빈틈이 없다. 비장애인들이 종사하는 여느 공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들은 중증 장애인이다. 잠시나마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봤던 어리석은 생각에 후회를 하며 깨닫는다. 진짜 장애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이곳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한 일자리’, ‘함께하면 쉬워진다’의 이념으로 2010년 4월에 설립한 사회적기업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다. 사회적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흔히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말로 표현하곤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 정도되는 250만명인데 이들 중 대다수 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비장애인인과 장애인이 어울려 생산활동을 하며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다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고 있다. 주요생산품은 복사용지와 종이컵, 사무용품 등이며 현재 전체 근로자 44명중 75% 이상이 중증장애인과 노

인 등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첫 번째 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100명이 함께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기상 대표는 사업초기에는 마치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 홀로 서있는 선인장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회고한다. ‘어떻게 해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을지,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직접 발로 뛰며 거래처를 방문하다 보니 좋은 아이템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정(인쇄, 복사용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가 및 쇼핑몰 등록, 교원공제회 (주)교원나라 전자조달 시스템 S2B등록, 환경표지 인증, ISO9001 획득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노력들로 2011년 연매출 12억에서 2013년 100억 돌파라는 ‘폭풍성장’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였고, 2013년도 인천시 최우수 사회적기업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용지류 영업의 강화와 전문성을 가진 인쇄사업단 운영, 그리고 한창 막바지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화장지 사업 등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하단체인 ‘유엔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 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장애인 20명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체 생산품인 종이컵 판매를 통해 그들의 자긍심과 독립심을 고취시켜 더욱 의미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눠 타면
공기가 맑아져요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동지를 틈 녹색기후금(GCF) 사무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GCF가 지구 기후변화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지구에 초록빛 숨결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맑고 밝게 만드는 길에 함께 하세요.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57
(주)케이티렌탈 컨소시엄 080-2000-3000, AJ렌터카(주) 1544-1600

“몇 시간만 빌려 탈게요~” 카셰어링 시대가 열렸다. 차 한 대를 여럿이서 같이 타면, 에너지를 절감하고 교통량을 감소시키며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차가 필요할 때 이용했던 렌트카는 하루 단위로 큰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셰어링하면 시간 단위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자동차가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일종의 차량 공유사업으로, 시는 민간 카셰어링 업체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주)케이티렌탈 컨소시엄과 AJ렌터카(주)는 인천터미널역 10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17곳에 235대의 차량을 배치했다. 앞으로 차량 임대장소를 100군데로 늘리고 차량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유형을 정하고 이용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장소는 남동공단 주변(업무중심형), 인천터미널·부평역 주변(대중교통 환승형), 부개동 주변·대학가 주변인 용현1·4동 주변(거주지형), 영종 하늘도시~송도·서구청~인천시청·만수북개2주차장 구간(편도형·왕복형) 등이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려면 케이티렌탈 컨소시엄(www.greencar.co.kr), AJ렌터카(www.ajcarsharing.c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예약한다.

요금은 표준 요금은 경차 기준으로 30분당 3천300원(유류비 별도·1km당 190원)이며, 이용료는 이용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회원요금은 35% 할인된 2천150원이며 시 카셰어링 서비스 개시에 따른 론칭 할인요금은 회원요금에서 12% 더 할인된 1천900원이다. 론칭 할인요금은 2014년 3월까지 적용된다.

그밖에 혜택 케이티렌탈 컨소시엄과 AJ렌터카는 카셰어링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저소득층에게 분기별 1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 상품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승용차를 팔거나 폐차한 회원에게는 연회비 면제 및 3개월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0시간 이용권 등을 지급한다.





News Brief

송도에 올해 외국대학 3곳 문 연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올해 외국 우수 대학 3곳이 추가로 개교할 전망이다. 2012년 3월 외국 대학으로는 국내 처음 개교한 한국뉴욕주립대에 이어 이들 대학이 예정대로 개교하면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총 4개 대학이 들어서게 된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외국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갖춘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100위권 대학 10개, 1만명의 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에 나섰다. 올해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동지를 틀 예정인 대학은 미국 조지메이슨대·유타대와 벨기에 겐트대다.

미국 내에서 법학 분야 대학 순위 30위, 공공행정 분야 순위 24위에 올라 있는 조지메이슨대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경제·경영학과 80명씩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겐트대와 유타대는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겐트대는 작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자생명공학·환경공학·식품공학과를 개설하고 최근 학생 모집에 들어갔다. 겐트대는 1817년 설립된 벨기에 최고 명문으로 2013~2014년 터타임즈 세계 대학 순위에서 85위(생명과학 분야 36위)에 올랐다. 유타대는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설립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32



철새 도래지 강화도 '시 유입 차단' 총력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철새 도래지가 있는 강화군 등 우리시에서도 AI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시가 발생한 적이 없지만 넓은 벌판에 철새가 자유롭게 오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시가 발생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지정한 화도면 남단, 강화군이 지정한 장흥저수지 주변, 망월 벌판 주변, 송림리 저수지 주변, 삼산면 석모도가 강화군 대표 철새 도래지로 꼽힌다.

강화군은 가금류 사용농가 766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를 돌려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는 한편, AI 발생지역 방문과 상호 간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농가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가금류 농가 진입로, 철새 도래지 등 취약지에 선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문의 : 강화군 930-4021

시립예술단의 재능 기부 호평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이뤄진 시립예술단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역의 학교 2곳에 교가를 제작해 헌정했다. 이번 재능기부 수혜 학교는 전국 최초의 기숙형 다문화 학교인 한누리학교와 시각장애인 인재를 육성하는 해광학교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해당 학교 교가의 편곡 및 연주를 담당했으며, 합창단은 4부 합창으로 교가 녹음을 진행했다. 이번 교가 헌정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진행하는 인천시립예술단 재능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편 인천시립무용단과 극단도 다양한 재능기부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해 진행됐던 인천시립무용단의 춤추는 우리체조의 시연, 보급은 학교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연극의 기초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지도한 인천시립극단의 시민연극교실도 참가자들의 큰 만족을 이끌어냈다.

문의 : 인천시립예술단 4420-2781

9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수당 지급

우리시는 올해 90세 이상 어르신 2천393명에게 생일축하금 형식의 장수수당 8억6천93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만 90세 이상 장수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 90세 30만원, 만 95세 50만원, 만 100세는 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2천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생일축하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조금 늘어난 2천393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연령별로는 만 90세 1천851명, 만 95세 456명, 만100세 86명의 어르신이 수당 지급 대상이다.

장수수당을 받으려면 인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7



News Brief

자치행정 모니터 110명 위촉

우리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자치행정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하고 110명의 자치행정모니터를 위촉했다. 자치행정모니터 제도는 시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모니터단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다양한 계층 및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아시아경기대회, 녹색경제, 문화관광, 보건복지, 건설교통, 청년모니터단 등 6개 분야에서 각 분과 영역별로 인천 시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 및 제보를 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440-2436



미추홀도서관, 다국어자료실 개설

미추홀도서관이 다국어자료실을 설치해 지난달 13일 개실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다국어자료실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설치 공보 사업비를 지원 받아 128.9㎡ 규모로 도서관 1층 미추홀터 전시실 옆에 설치됐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다문화 관련 자료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 시간은 휴관일인 금요일을 제외한 월~목,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국어자료실에는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 등 18개국의 언어로 된 다국어 도서가 7천100여 권 비치돼 있어 운영 시간 중 방문해 자료열람과 대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다국어와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그림책 읽기, 다문화 체험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미추홀도서관 440-6643

내년 초까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건축법에 맞지 않게 짓거나 고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의 50% 이상 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상가주택 등)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후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시 건축계획과 440-4724



장애 어린이 전용 재활센터 개소

전국 6개 권역별 장애인 재활 전문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우리시에 장애 어린이 전용 재활 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인지역 장애인 재활 전문 병원인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이날 어린이 재활센터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어린이 재활센터는 490.7㎡ 규모로 기존 병원 건물을 증축해 조성됐으며 어린이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부모대기실, 일일병동 등을 갖췄다. 물리·언어·심리치료 등 각종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가 이용 대상이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이용하던 기존 병원은 어린이의 재활 치료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 시설을 조성했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440-2949



송도 한옥복합체 내 외식·문화공간 들어선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 한옥복합체(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경제청은 지난달 16일 대회의실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엔타스에스디와 이 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엔타스에스디는 100억원을 들여 한옥복합체 내 약 1만2천564㎡ 부지에 한식 음식점과 전통문화체험관을 건축하고 25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을 짓는다. 음식점과 문화체험관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기 전인 오는 7월께 준공, 대회 기간 활용될 예정이다. 한옥복합체는 온돌방 형태의 전통호설 30실, 연회용 영빈관, 음식점, 문화체험관, 공연장, 저택거리 등을 포함한 전통문화·관광시설로 설계됐다.

인천경제청은 한옥복합체가 준공되면 공연장과 공원시설은 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322

국내 최고층 호텔, 7월 개관

국내 최고층 건물로 등재될 인천 동북아무역타워(NEATT)에 오는 7월 국내 최고층 호텔이 문을 연다.

서울 삼성동에 프리미어 레지던스 호텔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를 운영하는 ㈜한무컨벤션은 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타워(NEATT) 36~64층에 오는 7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최상층인 64층의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총 423개의 스위트급 레지던스 객실로 구성된다. 레스토랑과 바, 연회장과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3304



News Brief

동인천역 일대 누들 콘셉트 복합건물 건립

우리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북광장 일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3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보고회를 갖고 공영개발구역인 동인천역 주변 1구역(7만9천979㎡) 중 북광장 일부에 인천의 대표 음식인 쫄면, 칼국수, 냉면 등 누들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했다.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9천800㎡ 규모이며, 연간 총수요는 51만명을 상화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관광과 음식의 문화, 예술성이 강조된 전시, 공연, 체험 등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며 지하에는 주변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이 지역 상권 주차난도 해소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도시재생과 ☎440-4453

작년 '120미추홀콜센터' 42만8천건 이용

지난 한 해 동안 '120미추홀콜센터'에 접수된 전화 문의 건수가 총 42만8천993건으로 나타났다. 질문 사항별로는 교통 관련 문의가 12만3천279건(28.75%)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일반(10.72%), 생활정보(9.8%)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교통관련 문의 가운데 버스 시간과 정류소 위치 안내가 주를 이뤘고 버스과 택시 불편신고 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 일반 문의 중에서는 여권문의와 민원안내가 많았다.

현재 120 미추홀콜센터는 시정 민원처리 외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상담(영어, 베트남어, 몽골어)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화상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께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민원 업무와도 통합해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34

소청도에 철새연구센터 건립

웅진군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와 탐조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예산 확보로 탄력받게 됐다. 환경부 올해 예산에 철새연구센터 기본계획수립·설계비 2억원이 반영,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국비 35억원, 지방비 5억원을 합해 총 4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소청도는 국내 관찰 조류 518종 중 약 360종이 관찰된 것으로 기록된 지역이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번식한 조류가 남쪽으로 이동할 때 거치는 주요 경유지 중 한 곳이고 미기록종도 다수 서식·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철새연구센터와 교육·체험시설이 건립되면 소청도에 생태관광이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웅진군청 ☎899-3912



‘선두마을 나들길’ 새단장

강화군은 해안마을경관사업의 하나로 강화나들길 8코스의 환경을 개선했다.

강화나들길 8코스는 길상면 선두4리 선착장과 선두5리 어판장 사이 3km 구간으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도래하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잡초가 무성하고 땅이 질퍽거리는 데다 그늘공간·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없어 방문객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강화군은 나들길 코스에 저어새·갯벌·갈대군락을 조망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길을 마사토로 포장해 보행 편의를 개선했다. 마을대표 자생 수종인 양명두나무(양벚나무)를 심고 진입부에는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 차별화한 경관을 조성했다.

문의 : 시 도시디자인추진단 ☎440-4784



News Brief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도시, 인천

우리시가 전국에서 교통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2013년 전국 지자체별 '동아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에서 우리시가 전국 1위의 교통안전도시로 선정됐다.

동아교통안전지수는 동아일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문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지수로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하는 2013년 '교통문화지수'에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제를 더해 만들었다.

한편 우리시가 '교통문화지수'에서도 2012년도에 이어 2013년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이번엔 최초로 발표된 2013년도 '동아교통안전지수'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간 교통안전시책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교통안전 네트워크 회의 정례화 등의 구체적인 실천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440-3852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

우리시는 지난달 14일부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OCR)를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안전행정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시 세정과 440-2579

지하도상가에도 중국 은련카드 결제

앞으로 우리시 지하도상가에서도 중국 은련카드를 사용해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23일 지하도상가연합회, BC카드와 '인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 은련카드 결제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다, 올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중국 선수단과 관광객이 인천을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인천을 방문한 중국인은 2011년 32만6천369명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48만6천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의 : 시 생활경제과 ☎440-4213



웅진·강화 일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우리시는 백령·대청도 등 웅진군과 강화군 일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시는 올해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단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연구·심포지엄, 내년 기초학술연구 등을 거쳐 2016년 인증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지질공원 인증 조건은 면적 100㎢ 이상, 지질명소 20곳 이상 등이다. 현재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 일부 3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72

IFEZ-바이오프론트 산학연, 업무협약 체결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바이오 관련 주요 기업·대학·연구소가 네트워크 및 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지난달 22일 G타워 27층 대회의실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등 7개), 대학(인천대 등 5개), 연구소(JCB 공동생물과학연구소 등 2개)와 'IFEZ 바이오프론트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 협력 △기업·연구소 방문 견학과 업무 체험 기회 검토 △협력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와 자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61



외국인 위한 '맞춤형 후견인 제도'운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을 위해 1대 1 맞춤형 후견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경제청 및 인천시 직원, 문화·관광 전문 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직원 중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후견인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후견인은 외국인 정부 관련 생활서비스 인프라 정보 제공 및 인천을 소개하는 가이드 역할과 외국인들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공유하면서 우리 문화를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친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뿐 아니라 양국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청 관계자는 "후견인 제도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662

‘의회’가 학교로 찾아갑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달 8일 참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둔 ‘2014년도 의정아카데미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의정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의회교실,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등 6종 총 34회 1천340여 명이 참여한다.

시 교육청을 통해 올해 학생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 결과, 87개 학교에서 2천700여 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25개 학교 860여 명에 비해 참여 학교와 학생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시의회는 학교 측의 의정체험 참여 신청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리적 여건이나 시간상 참여가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정아카데미 메뉴를 만들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재능대로부터 사진작품 기증받아

인천광역시의회가 갑오년 새해를 맞아 재능대학교로부터 최용백 사진작가의 작품 ‘백령도 평화를 품다’를 기증받았다. 사진의 배경은 한 반도 지도를 닮은 동굴과 그 동굴 안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다. 그 소나무는 평화의 상징이며 인천을 의미한다. 이번 작품은 세로 200cm, 가로 134cm의 대형 작품으로 동양적인 선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기우 총장은 “2014년 새해에 시의회에 사진 기증을 통해 백령도가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거듭 태어나 자연과 인간이 아름답게 공생 공존하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기증받은 작품을 의회 중앙홀에 걸어 시민들에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인 물범이 서식하는 곳을 널리 알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꿈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 활발한 연구 진행

인천시광역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박승희 의원을 비롯해 안영수, 신동수, 안병배 의원으로 구성되어 ‘강화군의 지역특산물 판매활성화를 통한 인천관광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해 9월 1일에 등록한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금까지 6번의 연구모임을 가졌고,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들과 함께 강화군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강화인삼센터와 경인북부수협, 풍물시장 등을 방문해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실태를 조사하고 특산물 판매의 유통구조 및 인력, 판매상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향후 연구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지난달 17일 금요일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강화군의 지역특산물 판매활성화를 통한 인천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승희 의원의 주재로 안영수 의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복수 교수가 주재 발표를, 신동수, 안병배 의원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서 500권 시의회에 기증

인천시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도서 기증식이 지난해 12월 2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이성만 시의회 의장, 한국SGI 김규식 조직국장, 김종권 미추홀도서관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서 기증은 한국SGI(국제창가학회)가 인천광역시의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독서욕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 500권을 인천광역시의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에 기증한 것이다.

사랑나눔 장학금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37명 전체 의원과 8개 사회복지시설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나눔 장학금 2천300여 만원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실하게 성장한 8명의 고교졸업 예정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랑나눔 장학회’는 인천광역시의원 전원이 매월 5만원씩 정기적인 기부를 통하여 사랑 나눔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2007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지난달 21일에 제1기 사랑나눔 장학생 16명에게 8천6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장학금은 장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독립해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기반 비용 또는 대학진학 시 등록금 등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2014 아파트 관련 주요 추진계획 업무보고

인천광역시의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특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 보고는 특위가 지난해 11월에 8개구를 순회하여 개최했던 구별 순회 방문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2014년 아파트 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집행부에서는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의견 및 건의사항 총 18건 중 13건은 추진 가능한 사항이기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5건은 법령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 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공동주택 문화 활성화를 위한 북-콘서트 추진,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구축, 살기 좋은 아파트관리 협동조합 설립, 아파트 등 유희 공간 신재생에너지도입 활성화, 아파트단지 녹지관리 자문 및 컨설팅 등 신규 사업을 보고하며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 지원책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강병수, 이한구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강병수(갈산1,2동, 청천2동) 의원과 이한구(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의원이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우수 매니페스토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시된 의정활동 공약사항을 대상으로 공약완료도(70점), 주민소통(30점) 등의 지표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2013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37명, 기초의원 112명 중 강병수, 이한구 의원 2명만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1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기 의정모니터단의 2013년 현장 모니터링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모니터 요원간 친목도모와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지난해 12월 26일 개최했다.

제1기 의정모니터 요원은 총 42명으로서 활동기간은 2014년 6월까지로 그동안 총 70건의 지역현안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의회 주관의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이 제안한 의견은 조레나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보내져 시정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성만 의장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문제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 여러분들이 우리시 의회와 함께 시민을 위로하고, 인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수의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

투박한 ‘공장 도시’의 진짜 민낯이 궁금해?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공장’이란 테마로 책을 출판한다면 인천을 무대로 설정하는 게 맞다. 공장의 숫자,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공장 담에 기대 온 주민들의 삶 등 이런 유의 이야기를 펼쳐 놓을 수 있는 곳으로 인천을 능가할 도시는 없다.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정윤수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을 처음 접했을 때 제목만 보고는 “테마, 지대로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책이라면 이 책이 맞다. 그런데 ‘공장’, 특히 ‘인천공장’이란 테마로 서술한 책이라면 그 묘사는 조금 맹송맹송하다. 인천공장은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술술 넘어가지 못하는 공간이다. 투박하고 무식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나는 거대한 공장 담으로 둘러싸인 동네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 공장 담벼락에 기대어 말뚝 박기를 했고 매일 그 담을 골문 삼아 축구를 했다.

내가 태어난 동구 일대는 예나 지금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중후 장대한 공장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로 대낮에도 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게 스모그인지 안개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산업화 시대 누구 하나 그것을 탓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서에 우리 동네 공장들이 나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동네 아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철가루를 들이마서 ‘일찍 철든다’는 자조적인 말만 오갔다.

나는 공장 앞 큰길에 태극기를 들고 나간 적도 있었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제5공화국 출범 후 전두환 대통령은 산업시설 시찰 행사로 동구 송현동의 인천제철을 택했다.

시찰단 일행은 인천제철 쪽을 가다가 인근의 산동네를 보고 깜작 놀랐다.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사는 달동네가 그곳에 있었다. ‘아니 인천에 아직 저런 동네가 있나...’ 이 길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귀빈들의 산업 시찰 루트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런 비참한 풍경을 보여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통령의 철거 지시가 바로 떨어졌다. 1982년 불량주택 531채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10평에서 20평짜리의 5층 공영아파트 송현라이프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인천제철은 1978년 4월 현대그룹으로 흡수되면서 ‘현대제철’로 그 이름이 바뀐다. 이 대목에서 ‘경영인’ 이명박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해 6월 현대제철 사장으로 이명박이 취임한다. 그는 1981년까지 약 3년 동안 현대제철 사장을 맡는다. 1991년경 정주영 회장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할 즈음 이명박 사장은 정 회장에게 현대제철을 요구했다는 설이 있다. 한마디로 거절당했고 이후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이게 인천공장이 품고 있는 이야기다. 나는 이런 이야기



들을 들으면서 자랐다.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인근의 크고 작은 공장에 다녔다. 어른들은 여름 밤 명석 깔고 앉아 이런 이야기들을 흔하게 주고받았다.

노동의 기억. 정확히 얘기하면 노동과 관련한 기억은 별로 없다. 공장지대에 살았지만 노동쟁의, 파업, 노동조합 등 노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 듣거나 더욱이 목격한 적이 없다.

노동의 기억은 없지만 그 생생한 흔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동구 화수동 183번지. 그곳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태동한 곳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산업화 시절의 노동 운동과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의 불씨를 키웠던 곳이다. 1961년 9월 미국 감리교의 조지 오글 목사는 화수동 183번지의 낡은 초가를 구입해 ‘인천산선(인천도시산업선교회)’을 설립했다. 그는 추방되기 전 까지 이곳에서 한국인 목회자들과 함께 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인천산선은 김근태 등 유력한 민주화 운동가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인천 동구에는 동일방직,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어), 이천전기, 한국유리 등 큰 공장들이 많이 있었다. 선교회는 산업사회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화해자로서의 사명으로 직접 작업 현장에 들어가 이른바 ‘노동자 의식화’ 사업을 펼쳤다. 한때 도시산업선교회는 ‘도산’이라 불렸다. 도시산업선교회가 기업에 침투하면 그 기업은 도산한다며 산선을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몰아세우며 끊임없는 감시와 무차별 탄압을 펼쳤다.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화수동으로 출근해 하루 종일 산선이 있던 골목에 어슬렁거렸다.

산선의 노동자교회 자리는 이제 ‘일꾼교회’와 ‘사회복지선교회’로 바뀌었다. 현재 이 교회는 집회 사진과 보고문서 등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자료를 30여 박스 가량 소장하고 있다. 또한 동일방직 여공들이 피신해 있던 지하방 등 민주화 운동의 흔적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꼭 그곳에 태어나 자라야만 그곳을 잘 아는 것 아니다.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은 프로필만 봐서는 별 연고가 없는 듯한 저자가 인천 지역의 산업체를 두루 기행하며 취재하듯 구성했다.

1부 ‘인천, 공장지대의 삶’에서는 부평지역과 서구지역 그리고 남동공단

지역의 공장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서술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천의 공장지대는 원래 동구지역부터 시작했다. 일제의 병참 군수기지가 생기면서 농촌마을 부평에 공장이 들어섰고 이후 매립지 남동지역에 공단이 들어섰다. 서구의 공장은 책에서 얘기한대로 한참 후에 정유업체 중심으로 공장이 들어선 것이다. 인천공장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동구지역을 1부에서 그냥 넘어 가기에 2부를 기대했다.

2부 ‘공장의 기억과 기록’에서는 기대한 대로 동구지역의 공장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너무 멀리 갔다. 타임머신의 시간 세팅이 너무 ‘롱롱 어고우’다. 일제강점기의 성냥공장, 양조장까지 가버렸다. 물론 이 공장들도 그 옛날 인천을 대표하는 공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희미할 뿐 처절하지는 않다.

3부 ‘오늘의 공장 내일의 인천’은 미래로 빠르게 날아가 버렸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장을 거론했다기보다는 송도국제도시를 묘사했다. 물론 송도에도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미래형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인천공장으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고 더욱이 그곳을 내일의 인천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공장지대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공장을 노동의 기억으로 모든 도시의 추억으로 모든 그전독자의 몫이다. 나는 그냥 어린 시절 태극기 흔들며 대통령이 탄 시커먼 리무진을 맞이했던 추억으로 인천공장을 볼 것이다.



이달의 서평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생명이 자본이다	이어령	마로니에북스	생명자본주의 생각의 시작!
(공병호의)인생사전	공병호	해냄출판사	삶의 갈림길에서 꼭 한 번 물어야 할 74가지!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소피아 뎀블링	책읽는수요일	관계 중독 세상에서 나만의 생활방식을 지키며 조용하게 사는 법
종교는 왜 멸망하지 않는가	올리히 슈나벨	열린과학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감정 독재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세상을 꿰뚫는 50가지 이론
일하는 당신을 위한 결혼 사용설명서	오쓰카 히사시	부키	맞벌이 부부 1만 명의 리얼 처방전
인간과 동물 유대와 배신의 탄생	웨인 파셀	책공장더불어	21세기 동물해방 운동의 새로운 지침서
50세부터는 탄수화물 끊어라	후지타 고이치로	니들북	암·치매·노화 없이 장수하기
사물 판독기	반이정	세미콜론	미술평론가가 본 사물과 예술 사이
겐사이	케빈 홀	연금술사	가슴 뛰는 삶을 위한 단어 수업
내일	기욤 뮈소	밝은세상	엇갈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마주한 사랑과 배반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	박재선	메디치미디어	100명의 유대인에 관한 속 깊은 이야기!!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박미산 (본명 박명옥)



1954년 인천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6년 '유심' 시부문에 당선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너와집'으로
시부문 당선

대표저서

시집 '루나의 지도'(2008)

자유로운 사람들의

춤 이야기

글 김윤수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작년 초봄 즈음 인천시립무용단의 남성춤 신작 안무를 의뢰 받아 인천으로 향하는 초행길에 길눈이 어두워서 제법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늘상 그렇듯 스스로의 작품과는 달리 의뢰작들을 안무하러 다니는 길 위의 나는, 무언가 낯선이의 마음이 때론 보파리를 지고 다니는 떠돌이 행상 같이 느껴지곤 한다. 좋게 말하면 바람같은 삶이고,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이다.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천시립무용단의 일을 도우면서 느낀 인천의 인상은 황해를 향해 열려 있는 땅, 그곳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사람들, 그에 속하지 않아 얽매임이 없는, 바람 같은 사람들의 역동적인 추상(抽象)과 탈속(脫俗)의 심상(心象) 그러한 것들이었다. 해서인지 가끔은 인천의 기운이 남들이 말하는 나의 기운과 닮았다고 느껴지곤 했다.

새로운 길과 함께 새로운 안무를 하며 애썼던 기억이 어느덧 늘 경계하는 익숙함이 되어서 제법 편안한 길과 익숙한 무용단이 되어 있을 무렵, 인천시립무용단의 2013년 하반기 신작 연출과 안무를 맡게 되었을 땐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닌 섬세한 인과의 고리에 묶여있다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곳 인천의 대표 무용단인 인천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이 되어 있다. 그러 그러한 단상(斷想)들을 뒤로하고 단체를 이끌고 책임을 져야할 자리로 이동했으니 이제는 의도된 계획 아래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대에 올려질 작품만은, 그 춤을 추어낼 우리 무용단의 무용수들 감성만은 여전히 자유롭길 희망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춤 또한 자유로운 영혼



과 감성을 추어내기 위해선 무서울 만큼의 인내를 요구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춤은 쉽지 않은 과정의 산물 이므로 그 완급의 조절로 무대 위에 살아 숨 쉬어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삶이 요구한 경직된 마음을 풀고 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

인천시립무용단은 새로운 춤의 시대를 여는 선두에 서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춤 시장의 새로운 관객은 이전의 춤 관객과는 당연히 다른 감성과 다른 세계관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국제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사용되는 신체 언어의 변화와 그 가치의 재인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대와의 만남을 위해서 무용단은 지속적인 춤 언어의 개발과 훈련으로 차가운 연습실을 스스로의 온기로 데워가며 그 첫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낯선 움직임에서 농익은 몸짓으로 비상하기 위한 한겨울의 연습실 풍경은 소리 없는 자신과의 전쟁으로 그 속은 분주하다. 단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할 나만의 전쟁 또한 소리없이 분주하다.

생명이 자본이다

이어령 | 마로니에북스 | 2014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이어령이 50여 년 동안 축성시켜 온 주제인 생명자본주의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제된 언어로 풀어놓았다. 아궁이의 연탄불이 꺼져 살얼음 속에 박힌 금붕어를 살려 낸 '금붕어 유레카'의 경험은 곧 그날의 방과 어항을 얼렸던 추위에 대한 관심으로, 또 다시 사랑과 공간, 감동, 협력의 생명자본주의로 이어져 진정한 통섭의 세계를 보여준다.

사물 판독기

반이정 | 세미콜론 | 2013

미술평론가이자 파워블로거인 저자 반이정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사물과 현상과의 교감에 대한 논평과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는 사물 사전이다. 평소 눈여겨보지 않던 사물을 남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환기시켜 사물과 예술사이에 대한 짧은 비평을 하며 저자 특유의 재치와 경쾌한 글쓰기로 사물의 속사정을 들추어 본다.

(공병호의) 인생사전

공병호 | 해냄출판사 | 2013

국내 최고의 변화관리·경제경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저자 공병호가 삶의 갈림길에 선 3,40대들을 위해 인생선배로서 전해 주는 실천적 지혜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지난 10년간 저자가 수천 회의 강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받은 인생 질문들을 70여 개의 키워드로 정리하여, 사전처럼 그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한다.

내일

기욤 뮈소 | 밝은세상 | 2013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하버드대 철학교수 매튜 샤피로. 어느 날 중고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한 그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여자의 사진과 아이디어를 보게 되고 사진을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메일을 보낸다. 그 일을 계기로 아이디의 주인인 와인감정사 엠마와 채팅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는데...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영국의 인류학자 데즈먼드 모리스의 저서 '머리 기른 원숭이'의 머리말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날개 잃은 천사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머리 기른 원숭이에 불과하다.' 나와 춤을 돌아보게 하는 문구다. 작가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인간의 신체언어에 대한 리포트이지만, 이 문구는 예술가가 대중과 다름없는 사고로, 또 예술가라는 직업에 대한 선민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하고 싶다.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모집

인천광역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대학생 '서포터즈 4기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지원자격

- 청소년(진로)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
- 서포터즈 운영회의에 매달(월1회)참석이 가능한 자
- 한달에 1번 이상 센터보조업무, 프로그램 참여 가능자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월 8일(토)까지
- 서류합격발표 : 2월 11일(화) 13:00 이후 홈페이지 확인
- 면접일시 : 2월 14일(금) 14:00~16:00, 2월 15일(토) 10:00~12:00
- 최종선발발표 : 2월 18일(화)

※ 상기 모집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활동기간 : 2월~12월(10개월)

활동내용

-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행보조 및 프로그램 관련 제언
- 센터업무 보조 및 프로그램 자료제작
- 인천광역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 홍보활동

활동혜택

- 서포터즈 수료증 & 신분증 발급 / 자원봉사 실적 VMS 등록관리
- 심리검사 기회제공(STRONG직업흥미검사)
- 활동우수자 시상 및 인천시대학생봉사자표창 추천서 혜택
- 문의 : 762-5642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공연

경남 창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산아트홀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한 뮤직드라마 '당신만이'를 공연한다. 사랑과 감정으로 코끝이 찡해지는 뮤직드라마다.

일시 : 3월 14일~16일, 금요일 19시 30분, 토요일 15,17시, 일요일 15시

장소 : 성산아트홀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5천원

문의 : 055)268-7900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탐방을 함께 떠나요~

연수문화원은 학생들을 위한 봄 방학 프로그램으로 강화고려궁터 역사 탐방교실을 연다.

주제 : 강화의 고려궁터를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 유적탐방

참가비 : 2만5천원(연수문화원 회원가입비 5,000원 별도)

일시 : 2월 19일(수) 09:00~16:00

접수기간 : 2월 14일(금)까지

신청 홈페이지 : call.yeonsu.go.kr

문의 : 821-6229

시내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네이버로 본다

우리는는 인천버스정보관리시스템(bus.incheon.go.kr/iw/)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 시내버스 실시간 정보를 지난달 16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 지도에서는 인천 시내버스의 노선 정보와 정류장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내버스의 현재 위치, 도착시간 및 저상버스 정보 등을 네이버 포털과 네이버 지도 앱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440-3963

직업훈련생 모집

인천인력개발원은 2014년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위주로 진행하며 교육비는 없다. 교육수로 후에는 취업을 알선한다.

모집과정

과정	분야	인원	지원자격
2년과정	컴퓨터응용기계설계 제작	30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 실업자
	사출금형전문과정	30	
	메카트로닉스(MT)	30	
	임베디드전자	30	
	유니버설가구디자인	30	
	IT융합전기시스템제어	30	
1년과정	메카트로닉스	30	학력제한 없음, 만 15세 이상 실업자
	기계자동화시스템제어	30	
	PCL자동제어	30	
	전자응용의료기기	30	
인문고위탁 (1년)	정밀부품 3차원 모델링제작	30	일반계고 2학년 재학생 (2013년 현재)
	자동차금형 디자인	30	
	가구디자인	30	
	스마트회로 디자인	30	
명장아카데미 (1년)	머시닝센터가공실무	20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금형설계제작	20	
	그린에너지전기	20	
	IT융합통신	20	
	자동차정비	20	

※ 상기 과정 및 인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24일(금)~2월 26일(수)
- 면접일 : 2월 27일(목)

문의 : 810-6520

KBS 전국 노래자랑 연수구편 개최

연수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인 하키경기장과 선학체육관 개장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자 KBS 인기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 연수구편을 KBS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노래자랑 예심은 이달 13일 오후 1시 연수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열린다. 노래와 춤 등의 장기자랑을 갖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예심 참가]

참가접수 : 2월 3일~13일

접수처 : 연수구 문화체육과 각종 주민센터

참가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문의전화 : 749-7291~4

[녹화]

장소 : 선학체육관(실내)

시간 : 2월 16일 오후 1시(11시부터 입장)

※ 선학경기장 개장 행사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한다.

‘숲해설가 전문과정’ 9기 교육생 모집

인천녹색연합은 숲해설, 생태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숲해설가 전문과정’ 9기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기간 : 2월 25일(화) 개강, 6월 26일(목) 종강 예정

교육시간 :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오후 수업

모집인원 : 생태교육자, 숲해설가로 활동할 성인 33명

교육장소 : [이론]-인천녹색연합 교육실

[현장]-교육과목에 따라 산, 하천, 공원 등

※ 강의날짜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bolabada122@naver.com)

신청기간 : 2월 13일(목)까지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일 : 2월 17일(월)

선발자 교육 등록기간 : 2월 17일(월)~2월 18일(화)

교육비 납부: 서류심사에 합격하여 개별연락을 받은 선발된 교육자는 교육등록기간에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비를 완납해야 교육신청이 최종 완료된다. 선발되더라도 교육등록기간 내에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기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 548-6274

‘안녕하세요, 배다리’ 네 번째 이야기

인천의 유일한 사진 전문 갤러리인 배다리에서는 사진가 함미화사진전을 연다. 전시 주제는 ‘창영초등학교’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관람을 기다린다.

사진전 : 함미화사진전 ‘창영초등학교’

기간 : 1월 31일~2월 12일

관람시간 : 오후 1:00~6:00

문의 : 070-4142-0897

인천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소망’

2011년 3월, 바다 건너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핵발전(원자력)에 의한 전력 공급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대규모 정전 사태 및 초고압 송전탑 갈등 등 대도시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의존은 한계에 봉착했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위험하고 한정되어 있는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대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친환경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전기 생산을 인천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하고 ▽공공기관, 학교, 민간 건물의 지붕을 이용한 도시 내 전기 생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공익사업을 전개한다. 조합은 2013년 1월 18일 설립됐다. 그동안 조합은 70여 회의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베란다와 개인 주택 옥상에 마이크로 발전소를 설치했다. 또 100Kw급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을 찾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주안도서관 옥상에 건설 중이다. 또한 인천 향토기업 동양제철화학에 뿌리를 둔 OCI에서 재생에너지 사업확대의 사회적 공헌 협력 파트너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엔 조합의 활동실적을 인정받아 2013년 인천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2014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우리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強小農)'을 만들기 위한 2014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한다. 희망하는 경영체는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로 신청바란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로서 전업농 미만 중소기업 가족농
- ※ 신청 시 품목별 전업농 분류 기준 참고하여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필수
- ※ 농식품 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포함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선정된 경영체에 대한 지원 사항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접수기한

- 2월 14일(금)까지
- 문의 : 440-6922~23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시작한다. 이에 경제혁신을 이룰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간 : 2월 14일까지

당첨발표 : 개별연락

참여방법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10가지 계획을 살펴본 후 위 내용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과 대안을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희망을 향한 희망의 새, 솟대 전

해명단청박물관에서는 인천무형문화재 14호 단청장 정성길 선생이 수십 년간 만든 솟대 작품에 전통문양을 채색하여 2월 중순경(미정)부터 솟대전을 준비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2014년 새해를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라는 메시지를 담고있다. 솟대는 민간신앙의 상징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간 역할을 하여 화재, 가뭄, 질병 등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이었다.

일시 : 2월 중순경(미정)

장소 : 해명단청박물관 1층 갤러리

문의 : 868-5898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인천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구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 센터’를 운영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일정 : 2월~11월까지

	가좌지역	검단지역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2~6시	매주 수요일 오후2~6시
장소	가좌건강증진센터 1층 상담실	검단보건지소 2층 사례관리실

대상 : 서구지역 전체주민

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제공(스트레스, 우울, 자살, 알코올 문제 등)

주관/주최 : 인천 서구보건소·인천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 : 560-5006, 5039, ismhc.or.kr

모든 심리검사 및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병원비는 개인비용 발생)

여성·아동 안전 허브마을 지원

우리시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여성·아동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폭력없는 여성·아동 안전허브마을 지원사업을 한다.

신청자격

-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아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여성·아동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지원사업 분야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없는 안전마을 조성 활동
-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안심귀가 코스 운영, 마을살피미, 골목지킴이 사업
- 마을 순찰사업, 안전귀가 도우미 지원
- 마을내 폭력 감수성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안심귀가 지원 마을
- 우리마을 온라인 안전지도 제작
- 가정폭력 제로스쿨, 성폭력 예방 인형극
- 여성·아동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등

사업 추진기간 : 3월~12월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월 7일(금)까지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시 여성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의 : 440-2758

Good Morning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인도 델리	
49	
에티켓	
인사와 악수	
50	
Asiad News	
“Hi 인천AG~”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요 외	
52	
중인	
인천시체육회	
56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중국	
58	
하나되는 아시아	
우리는 조류 독감 같은 거 몰라	
60	
아시아를 배우다	
언어권별 회화	

총 45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더 큰 세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굿모닝인천'의 글로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도 델리의 풍경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신과 묘하게 닮아 있다. 다양한 언어와 민족, 종교가 공존하는 12억 인구의 수도는 '이념, 민족, 종교를 넘어선 화합'이라는 대회 슬로건과도 궤적을 같이한다. 제1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이곳 뉴델리에서 처음 열린 것도 나름 사연을 지닌 셈이다. '문화의 용광로'에서 쏟아내는 개성 넘치는 단상들은 다채로운 역사만큼이나 상상 밖 정경을 만들어낸다.

글 서영진 여행칼럼니스트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첫 AG가 열린

신비의 땅

인도 델리(Delhi)

희귀하면서도 반가운 오래된 풍경

예측불허의 땅 델리에서는 '어긋남'보다는 조화의 모습이 강렬하다. 경계를 넘어선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살가운 호흡을 나눈다. 델리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여행자들이 함께 만나는 대표적인 공간은 빠하르간지다. 뉴델리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어떻게 보면 배낭족들의 아지트와도 같다. 골목 가득 게스트 하우스와 환전소들이 몰려 있고 덩치 큰 배낭을 멘 여행자들이 하루 종일 서성거린다. 인도 북부나 남부로 향하는 버스들도 이곳 빠하르간지 초입에서 출발한다. 1박 2일 넘게 달릴 버스를 기다리는 청춘들은 퇴색한 복장에 얼굴만은 달뜬 표정이다. 국적도 민족도 피부색깔도 제각각인 이들은 분위기 만큼은 닮아 있다.

빠하르간지의 4층 노천 식당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더욱 낮설다. 식당 안은 대낮인데도 히피 복장의 젊은이들이 반쯤은 벽에 몸을 기댄 채 차를 훌쩍 거리거나 맥주를 마시고 있다. 그 아래 골목은 시장 풍경이다. 온갖 좌판대가 늘어서 있고 사이클릭샤를 타고 번잡하게 사람들이 오간다. 뉴델리 지역은 사이클릭샤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느리게 흘러가는 사이클릭샤를 흔하게 볼수 있는 곳은 이곳 빠하르간지 일대다. 최근 공항에서 뉴델리역까지 고속 공항철도가 개통된 것을 감안하면 이런 오래된 풍경은 희귀하면서도 반갑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명과 옛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질감 없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빠하르간지를 벗어나 뉴델리 지역에서 만나는 차량들은



혼재된 종교 안에서의 통일성은 차량에만 그치지 않는다. 델리 전역에 널려 있는 세계문화유산 유적에서도 아슬아슬한 공존의 의미를 체감하게 된다. 델리를 대표하는 유물은 ‘꾸뎀 미나르’다. 1193년 델리의 마지막 힌두 왕국을 무너뜨린 직후 이슬람 군주에 의해 세워진 탑은 높이가 73m에 달하고 위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아프가니스탄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 미나르 옆에는 인도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쿠와트 알 이슬람 모스크도 들어서 있다. 힌두교 사원을 부순 위에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선 형국인데 사원 가운데 오파츠라는 쇠기둥은 1천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녹이 슬지 않은 신화적인 사연을 지니고 있다.

올드 델리의 지난한 세월을 담다

델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건축물들에 대한 공존이 이해가 간다. 영국이 만든 계획 도시인 뉴델리 이전부터 델리는 수천 년 역사를 간직한 땅이다. 델리 자리에 있었던 도시만 7개인데 그중 5개가 외부민족에 의해 세워졌다. 델리 지역은 외세가 인도평원으로 들어서는 관문에 위치했고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려야 했다. 잦은 홍망의 역사 때문에 ‘델리를 점령하는 자, 곧바로 델리를 잃는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뉴델리를 건설해 델리를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영국은 겨우 16년만 이곳에서 주인 행세를 했을 뿐이다. 옛 영국의 흔적은 라즈쁘라빠피 바반으로 불리는 대통령 궁이나 국회의사당 등에서

유독 차체가 높다. 영국차를 본딴 덩치 큰 엠베서더 택시가 다운타운을 오가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키 큰’ 차량이 인기 높은 것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도 연계가 깊다. 잘 살펴보면 인도인들이 서구사람들처럼 키가 큰 것은 아니다. 인도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땅이고, 힌두교도나 시크교, 이슬람교도 등은 기념일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잦다. 옛 골목이 남아 있는 올드델리의 찬드니 촉 거리 등에서는 이런 두건 쓴 주민들과 쉽게 조우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를 상징하는 두건이 차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체가 높은 차량을 선호한다. 초기에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런 기호를 몰라 수출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요즘도 거리의 차들을 살펴보면 같은 경차라 할지라도 차체가 높은 차량들이 애용된다.



아시아경기대회 History

인도 뉴델리에서는 역대 아시아경기대회가 두 차례 열렸다. 1951년 첫 대회에 이어 1982년 9회 대회가 이곳에서 치러졌다. 아시아경기대회의 모태가 된 서아시아경기대회가 1934년 처음 열린 곳도 이곳 뉴델리다. 극동선수권대회와 서아시아경기대회로 양분돼 있던 경기는 1948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인도, 필리핀, 미얀마, 타이완, 스리랑카 등 6개국이 모여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해, AGF(아시아 경기연맹)을 창설하면서 현 아시아경기대회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회 대회 당시 6·25 전쟁의 여파로 참여하지 못했다.

선명하게 엮보인다. ‘왕의 길’로 통하는 라즈파트 일대는 영국 건축가 에 의해 디자인됐고, 가로등 위에 범선 등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나 엠 베세티 관용차들이 늘어선 풍경들은 여지없이 서양의 한 곳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인디아 게이트를 지나는 이 대로를 따라서 인도 공화국의 창건일 등에는 각종 퍼레이드가 펼쳐지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퍼레이드의 종착점이 올드 델리의 레드포트라는 점이다. 레드포트는 올드 델리가 수도였던 시절 무굴 제국의 왕궁으로 사용됐던 건물로 외곽은 붉은 벽돌로 철벽같이 둘러싸여 있다. 성의 입구이자 구권력의 상징인 라호르 게이트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 게이트를 지난 골목은 찻타축이라는 장신구 상가가 들어선 일상의 풍경이다.

레드포트 앞 거리는 찬드니 축으로 불리는 올드 델리 최고의 변화가 다. 변화가라고 하지만 은시장, 향신료 시장들이 어수선하게 들어서 있는 옛 장터의 정경을 보여준다. 가득한 인파 사이로 소떼도 다니고 오토릭샤도 달리는 모두 생경한 모습들이다.



가는 길 인천국제공항에서 델리 인디아 간디 공항까지 아시아나 항공 등 직항편이 운항 중이다. 델리까지는 약 8시간 소요. 인도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공항에서 뉴델리역까지는 공항열차가 다닌다. 공항에서 시내로 갈때는 일반 택시 대신 공항버스 'EATS' 나 안내소에서 미리 티켓을 구입하여 프리페이드 택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고 편리하다.

음식&숙소 인도에서는 밥 보다 빵이 일상적이다. 서민식에 속하는 짜빠티나 고급에 속하는 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빵들은 카레와 곁들여 먹으면 맛이 좋다. 델리의 저렴한 숙소는 바하르간지 일대에 몰려 있다. 깔끔한 숙소는 뉴델리의 코넛 플레이스 근처에 있다. 인더스빌라스(www.indusvillas.com) 등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시설도 깔끔한 편이다.



글. 조미령 인천국제교류재단 팀장 그림. 유환석



입장권 미리 인터넷으로 구입하세요

지난달 7일 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판매를 위한 인터넷 예매 사이트가 오픈하고,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 입장권의 가격은 개최식 10만에서 100만원, 폐회식 10만에서 60만원이다. 일반 경기는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5천원까지 종목별·좌석별로 구분해 판매한다. 웹사이트(ticket.incheon2014ag.org)나 모바일사이트(m.ticket.incheon2014ag.org)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1차 예약판매 기간인 3월 31일까지는 10% 할인, 2차인 5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는 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Hi 인천AG~”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요



블로그 기자단 발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제9기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터치인'이 지난달 16일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기자단 30명은 대회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며 대회와 관련한 다양한 기사를 작성, 공식 블로그(blog.incheon2014.kr)에 게재한다. 블로그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일 방문자가 최대 1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방문자는 342만명에 이른다. 국문 블로그뿐 아니라 영문 공식 블로그(blog.incheon2014ag.com)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제2기 외국인 블로그 기자단(IAG Crew)은 지난달 15일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13개국 출신 20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현지의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블로그에 올리게 된다. 오는 5월에는 3기 외국인 블로그 기자단 4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인천AG 서포터즈 모집

우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각국 선수들을 응원할 시민 서포터즈 5만명을 모집한다. 시민 서포터즈는 주로 경기장 관중석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선수단 입출국 환영·환송행사, 입촌식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따로 없으며 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supporters.incheon2014.kr)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서포터즈도 지난달 6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국가별로 나누어 지정국가를 응원하는 청년 서포터즈는 3월 9일까지 총 5천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스포츠 선정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201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특별상' 스포츠 부문에서 '2014년 기대되는 스포츠'로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포럼 등이 주관하는 이 상은 소비자평가단·화이트컨슈머의 이메일 조사, 온·오프라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 매년 기대되는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브랜드 어워드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목표로 한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아시아 스포츠 이벤트 사상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포츠 강국들이 포진한 동아시아를 소개합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에 45개 아시아 국가를 권역별(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남아시아)로 나누어 각 국가에 대한 정보와 강세 종목을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로 동아시아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아시아 대륙 북동부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2위 (금 76, 은 65, 동 91)
강세 종목 : 수영, 양궁, 배드민턴, 펜싱, 골프, 유도, 태권도, 구기종목

중국 China

아시아 동부에 있는 나라로, BC 221년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1위 (금 199, 은 119, 동 98)
강세 종목 : 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체조, 사격, 역도, 우슈, 구기종목

일본 Japan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4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섬나라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3위 (금 48, 은 74, 동 94)
강세 종목 : 수영, 유도, 공수도, 럭비, 트라이애슬론, 구기종목

몽골 Mongolia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있는 국가로, 정식명칭은 몽골 울스다.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가 된 국가이지만 최근 공산주의를 버리고 개방외교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21위 (금 2, 은 5, 동 9)
강세 종목 : 레슬링, 유도, 사격, 복싱, 우슈

대만 Taiwan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이지만 올림픽이나 국제기구에 참가할 때는 중화 타이베이라고도 한다.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7위 (금 13, 은 16, 동 38)
강세 종목 : 테니스, 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사이클

홍콩 Hong Kong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로 홍콩의 주권은 1997년 7월 1일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따라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행정·입법 및 사법권을 향유한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11위 (금 8, 은 15, 동 17)
강세 종목 : 사이클, 배드민턴, 탁구, 우슈, 스쿼시, 승마

북한 North Korea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보통 북조선으로 표기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의한 한반도 점령을 계기로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부에 수립되었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12위 (금 6, 은 10, 동 20)
강세 종목 : 사격, 체조, 다이빙, 축구, 역도, 유도, 탁구

마카오 Macao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로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되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입법, 사법권을 향유한다.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순위 : 26위 (금 1, 은 1, 동 4)
강세 종목 : 공수도, 우슈, 다이빙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로,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불을 밝힌 성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환히 비춘다. 우리시는 지난해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제94회 전국체육대회를 시민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리고 그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를 오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까지 이어 대회의 성공을 이끌 것이다. 지금 이순간,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리며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인천시체육회, 정정호 자유사진가

2014년 9월을 준비하는 사람들



“인천은 지난해 전국체전을 대회 기간 내내 화창했던 날씨처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장 시설과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관중석이 꽉 찰 정도로 흥행에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인천 선수단이 종합 3위에 오르며 개최도시에 걸맞은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후끈 달아오른 스포츠 열기를 계속 이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리라 기대합니다.”

인천시체육회의 이규생 사무처장은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을 발판 삼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확신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리허설 격인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거두고 밝은 미래를 확신한 데는 인천시체육회의 역할이 컸다. 인천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엘리트체육을 활성

화하는 조화로운 선진 체육시스템을 구현하며 인천체육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축제를 여는 도시의 위상에 맞추어, 인천에 국제스포츠 교류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인천국제여자첼린저테니스대회,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프레지던츠컵 등의 국제대회가 열띤 성원 속에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인천시체육회의 모토는 ‘새로운 인천체육’이다. 체육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눈을 돌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6 브라질올림픽에서 활약할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찾아가는 체육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엘리트체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선수들은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열리는 만큼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0개를 따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수영장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핸드볼의 류은희와 김온아는 ‘우생순’ 신화를 재현할 것이다. 육상 단거리의 제왕 여호수아는 대한민국 육상 단거리의 화려한 부활을 알릴 것이다. 2연패에 도전하는 광주우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 정순옥을 비롯해 세계랭킹 1위의 복서 신종훈, 태권도의 김미경, 역도의 안용권, 요트의 하지민 등도 인천의 이름을 빛낼 것으로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천체육의 미래,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인천시체육회를 이끌었던 이규생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개인적인 일정으로 사무처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3년 5개월 여의 재임 기간 동안 전국체전을 순조롭게 치르는 등 지역체육을 잘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인천체육의 발전을 위해 늘 머물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억에 남는 성과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고, 인천체육인들의 숙원이었던 체육회관 건립문제를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또 2014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5개를 새

로 수탁하면서 시 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고, 박태환 선수를 인천시로 영입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제9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폐막식에서 인천선수단을 대표해 종합 3위로 시상대에 오른 일이 기억에 남는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거는 기대감은 인천은 이미 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사무소 유치 등으로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세계 스포츠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인천연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어, 인천체육이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발판을 마련하리라 믿는다.

체육 발전을 위한 조언 현재 엘리트체육은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프로스포츠와 생활체육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 더구나 엘리트체육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현저하게 줄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체육회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체육회와 모든 체육인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체육계가 지방체육 발전의 리더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

인천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올해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만큼 인천연고 선수들은 물론, 대한민국 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체육의 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데 있다. 인천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체육의 진가를 헤아려서 앞으로도 더욱 인천체육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2월

스키(미정)
제3회 인천광역시장배 스키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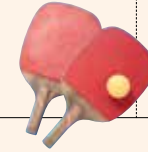
3월

육상(3월 1일)
3.1절기념 제63회 단축마라톤대회
송도국제도시 일원

육상(3월 30일)
제14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4월

탁구(4월 3일~7일)
2014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총13회, 인천 4회)
송도글로벌대학교 캠퍼스체육관



댄스스포츠(4월 13일)
제7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
삼산월드체육관



5월

축구(5월 중)
제12회 미추홀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송도LNG축구장

카누(파견-5월 중 / 초청-미정)
2014 한·중카누(용선)교류사업(제2회)
인천시 / 중국 광둥성 혜주시



야구(5월 3일~7일)
제3회 인천광역시장기
초·중·고 야구대회
송도LNG야구장

인라인(5월 10일)
제11회 인천월드인라인컵

테니스(5월 11일~18일)
2014 인천국제여자첼린저테니스대회(제11회)
열우물테니스경기장

체전(5월 24일~27일)
제43회 전국소년체전

6월

육상(6월 중 3일간)
제1회 인천광역시장기 초·중학교 육상경기대회
문학경기장 / 송도국제도시 해안도로



7월

보디빌딩(7월 중)
2014 인천광역시장배
전국피트니스선수권대회(제12회)



축구(7월 23일~28일)
2014 사이타마국제주니어축구대회
일본 사이타마현



8월

사이클(8월 중)
제14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
및 2014 마스터스 인천도로대회
(트)국제벨로드롬 / (도)송도일원

모터보트(8월 중)
제4회 인천국제모터보트대회

당구(8월 중)
제3회 인천광역시장기
인천오픈 3쿠션 전국당구대회
관내 사설당구장 등

축구(8월 4일~7일)
2014 한·일친선주니어축구대회
일본 요코하마시



축구·배구·농구·탁구·배드민턴(8월 16일~22일)
제18회 한·일청소년하계스포츠교류사업
일본 아키타현

9월

바둑(9월 중)
제7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아마바둑대회
도원실내체육관

궁도(9월 13일~15일)
9·15기념 제31회 전국남여궁도대회
무덕정



육상(9월 15일)
9.15기념 제33회 초·중·고역전경주대회
송도국제도시 일원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9월 19일~10월 4일



10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 INCHEON ASIAN PARA GAMES
10월 18일~24일

육상(10월 5일)
제5회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체전(10월 24일~27일)
제43회 전국소년체전

11월

당구(11월 2일~3일)
제4회인천광역시장배
전국 초·중·고 대학생당구선수권대회
로테오당구장



12월

빙상(12월 중)
제4회 인천광역시장배
빙상경기대회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장



축구(연중)
인천FC 서포터즈 지원

축구, 야구, 농구, 배구(연중)
프로구단 홍보비 지원
인천FC, SK와이번스, 전지랜드, 대한항공, 흥국생명



문의 : 인천시체육회 888-0071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중국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 아시아 각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전통·종교 등이 한자리에 모이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아시아가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곳곳의 문화와 풍습,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를 알고 느껴보자.



중국의 정식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이며, 수도는 2천200만명이 살고 있는 베이징이다.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km²로 한반도의 44배이며, 세계 4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강으로는 길이가 6천300km인 양쯔 강(揚子江)과 길이가 5천 464km인 황허 강이 있다. 중국의 인구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약 13억 3천972만명(타이완, 홍콩, 마카오 제외)이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이다. 중국에는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소수민족은 1억 1천379만명으로 총 인구의 8.5%를 구성하고 있다.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은 약 200만명으로 소수민족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어(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몇몇 방언 및 소수민족의 언어도 쓰이고 있다.

하게 살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소는 찹쌀가루를 살살 굴려서 만드는 것으로, 팥, 검정 깨, 완두콩 등 여러 가지 소를 넣어서 만드는데 무척 달고 맛이 좋다.

또 이날 중국 전역은 불꽃놀이와 오색찬란한 꽃등으로 장관을 이룬다. 불꽃놀이는 폭죽 터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으로 거리는 대낮처럼 환해진다. 또 다양한 등으로 장식한 거리는 신세계를 온 것 같이 찬란하고 아름답다. 따라서 정월대보름날은 오색찬란한 등불을 밝히는 날이라 하여 ‘등불의 날’(등절: 燈節)이라고도 불린다. 등은 꽃, 새, 동물, 정교한 인물이나 건축물 등 다양각색 저마다 모양과 색으로 만들어져 거리를 장식한다. ‘등불의 날’ 행사는 통상 정월대보름부터 며칠씩 지속된다.

특히, 등불축제의 경우 온통 거리는 몇 천 몇 만의 갖가지 오색 등불로 가득 메워 화려한 정월대보름을 만끽한다. 휘황찬란하고 이색적인 각가지 등불은 시민들의 정월대보름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관광객의 마음까지도 사로잡는다.

한겨울

중국 정월대보름(元宵節)의 진풍경

글. 필덕영(중국, 36)



중국의 정월대보름(원소절:元宵節)은 아주 유별나다. 중국은 1월 1일 춘절(春節)부터 원소절인 정월대보름까지 쉬면서 각종 민속공연을 구경한다. 1월 1일 새해 하루만 쉬고 바로 일터로 복귀하는 한국은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한국은 정월에 가족 중심적이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데 비해 중국에서 정월이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 비해 좀더 엄숙하며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월대보름(원소절)은 춘절 직후의 최대 명절이다. 중국에서 정월대보름이 전통적인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천여 년 전 한나라 초기에 시작된 아주 오래된 전통명절에서부터다. 이 날은 춘절(새해 첫날) 뒤에 오는 첫 번째 보름날 밤으로, ‘정월 보름날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긴 춘절기간(새해 첫 날부터 보름 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고유명절인 것이다.

원소절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온종일 폭죽과 불꽃놀이를 즐기고, 팔죽의 새알심에 검은 깨, 팥 등 여러 가지 소를 넣은 원소와 물만두인 교자만두를 별식으로 먹는다.

원소(둥근 찹쌀경단)를 먹는 것은 일 년 내내 온 가족이 둥글둥글 원만하고 행복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장원

우리는 조류 독감 같은 거 몰라

필리핀 마닐라 투계장(鬪鷄場)의 모습입니다. 닭은 자기 발목에 예리한 칼을 달고 상대를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투계들은 조류독감 걸릴 틈도 없이 '킬' 당합니다.

김민지 연수구 동춘동 앵고개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아~ 아름다운 아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창구비치. 친구들이 바다를 배경삼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쁜 바다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지성 서울시 관악구



비나이다

“저 중학교 들어가면 좋은 선생님 좋은 짝꿍 만나게 해주세요”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 소주의 한 사찰에서 중국 소년이 심각하게 향불을 밝혀 기도하고 있다.

김진례 남동구 소래역로



일본의 짚 장화

일본의 쌀 고장으로 많이 알려진 니가타현은 관광상품도 벚짚을 이용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짚신이 있다면 그곳엔 짚 장화가 있습니다. 저 짚 장화는 언제 신어야 하는 것인가요.

정현산 서울 화곡동



하나되는 아시아 수업

인천해송고등학교가 국제교류행사의 하나로 말레이시아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하나되는 아시아 수업(One Asia in Class)’을 열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봉수 연수구 해송로



피피섬의 꼬마 아가씨, 안녕?

태국 피피섬에 여행 갔을 때 만난 동네 꼬마 아가씨입니다. 인형같이 예뻐서 카메라 셔터가 저절로 눌러졌습니다. 아시아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참 가까운 친구입니다.

김수미 부평구 안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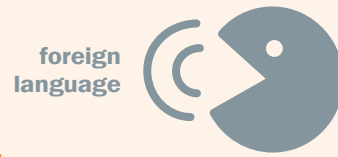
자전거에 인형이?

일본 오사카의 재래시장. 장을 보는 아주머니의 자전거 뒤에 인형이? 가까이 가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네요.

정명훈 부평구 열우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4년, 우리시에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스포츠 빅 이벤트가 열린다. 아시아의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아시아경기를 치르고 보러 인천에 많이 올 것이다. 물설고 낯선 이국땅에 온 외국손님들에게 그 나라말로 전하는 따뜻한 인사,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 주고 위로를 준다. 또 인천사람들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잘 준비해 왔음을 느끼게 한다. 간단한 말을 배워 아시아의 선수단이나 관광객을 만났을 때 그 나라말로 인사를 건네보자. 처음 만난 사이지만 굉장한 친근감은 물론 감동을 느낄 것이다. 이달에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배워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 유용하게 써보자.



영어

It's nice to meet you!

잇츠 나이스 투 미유



중국어

见到你很高兴。

찌엔 따오 니, 현 까오 씩



일본어

お会(あ)いできてうれしいです。

오아이데끼떼 우레시아데스



마인어

Bagus dapat berkenalan dengan awak

바고스 님팟 브크나란 등안 아왁



베트남어

Rất vui được gặp anh(남) / chị(여자)

런 뷔 덕 갓 (남자)아잉 / (여자)지



이란어

خوش حالم كه ديدمتون

코쉬 할람 케 디다네 툰



몽골어

уулзсан даа баяртай байна

울자산다 바이리타 바인



타이어

ยินดีที่ได้รู้จัก

인디 티다이루작



라오스어

ຍິນດີທີ່ໄດ້ພົບ (ຍິນດີທີ່ໄດ້ຮູ້ຈັກ)

닌디티다이퐁(닌디티다이후작)



싱할리어 (스리랑카)

yuqjSu i:=gla

하무위마 사투팍



아랍어

أنا مسرور بلقاااكم

아나 마쓰루-르 비리카이꿈



달리는 꽃다발

커다란 꽃다발들이 거리를 오고 갑니다.

어떤 꽃다발에서는 음악까지 들려옵니다.

간혹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흘러나옵니다.

비록 향기 없는 가짜 꽃이지만 원색의 열대 꽃들이 기분을 한껏 들뜨게 합니다.

세계 문화유산 도시 말레이시아 말레카에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삼륜인력거 ‘트라이쇼(Trishaw)’가 있습니다.

녹슨 삼륜차도 꽃으로 장식하니 ‘금차첨화(錦車添花)’입니다.

화려한 꽃과 음악으로 장식한 이 삼륜차를 타면

잠시나마 꽃 속의 나비와 별이 됩니다.

– 말레이시아 말레카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